

MAGAZINE Gunsan

People & Culture in Gunsan



9 772383 813003
ISSN 2383-8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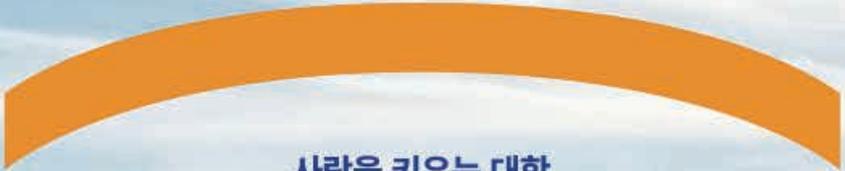
___ 나라바이오 김일호 대표 ___ 길고양이들의 쉼터 사단법인 묘연 ___ 동군산병원 건강증진센터 이용길 센터장
 ___ 맥팩토리 이현우 대표 ___ 알콩달콩 통기타 동아리 리더 고명수 ___ 전통한국음악예술원 김금희 원장
 ___ 자원봉사자 김영림 ___ 달촌책방 오은희 대표 ___ 해녀대합실 백효숙 대표 ___ 강이레 여사
 ___ 죽향참치 안영란 대표 ___ 김병운 기자 ___ 영인바이오 안심당면 ___ 새만금 해수유통 기자회견문



새로운 시각은 어디에서 올까요?
 가능성은 어떻게 현실이 될까요?
 미래가치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든 것의 중심에 사람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사람으로 세상을 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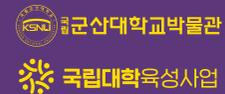


사람을 키우는 대학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융합교육 선도대학

교육혁신의 선두!	산학협력의 강자!	글로벌 인재의 요람!
-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선정 - 국립대학육성사업 선정 -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선정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육성사업 선정 -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4개 분야 최우수	- 교육국제화역량인증대학 선정 -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선정 - 신재생에너지사업(대형해상풍력 터빈 해상실증 기술 개발) 선정

군산대학교 발전기금 기부계좌 안내
 • 전북은행 558-23-0312120
 • 신한은행 100-011-581350
 • 국민은행 759301-01-595479
 예금주: 재) 군산대학교발전지원재단

GALLERY it_da



군산대학교박물관은
 이 공간을 통해
 지역 속으로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박물관 갤러리 잇다」는
 문화와 예술로 사람과 사람, 대학과 지역을
 잇는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전시실 면적 230㎡ / 층고 3.4m

시민과 함께
꿈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시민이 직접 만들고
모두가 행복한 이곳,
바로 **군산**입니다



 **군산시**
GUNSAN CITY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상상을
그 이상을 향해!

SHIDAO International Ferry

P.S NEW SHIDAO PEARL / P.S GUNSAN PEARL
DAILY SERVICE



석도국제해리(주) www.shidaoferry.com

군산 tel. 063-441-1200 fax. 063-441-1220
석도 tel. +86-631-728-6666 fax. +86-631-728-9399
서울 tel. 02-725-7811 fax. 02-725-1671
하역/운송사 (주)제법 tel. 063-461-1803 fax. 063-461-1836



국내에 남아있는 유일한 일본식 사찰
동국사 앞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 동국

옥상 테이بل에 앉아 동국사를 훤히 볼 수 있습니다.



010-5546-0955

전북 군산시 동국사길 7 (월명동 19-11)

blog.naver.com/firegirn



게스트하우스 동국
예약하기



오직 한 길,
71년간 타월만을
고집합니다

松月

이젠 타월도
품격 있는
송월타월로 선물하세요



각종행사용 기념타월 선물세트, 관공서, 교회, 학교, 회사 답례용품,
개업, 결혼, 칠순, 단체행사 등 답례용품, 최신 컴퓨터 도입

松月 송월타월
SONGWOL TOWEL
(주)군산대리점

대표 류응수

군산대리점_ 군산시 수송동 442-7 (수송동 군산불링장 건너편)
T. 063-464-8002 M. 010-3672-5140

군산사랑점_ 군산시 수송동 50-7 (은혜산부인과 / 캐리어에어컨 옆)
T. 063-454-8300 M. 010-3953-5140

K1002-A4600001

松月 SONGWOL TOWEL
송월타월 공식 지점 대리점
송월타월 주식회사



군산에서
K-컬처의
시작으로!

미가엘
실용음악
연기학원

한동현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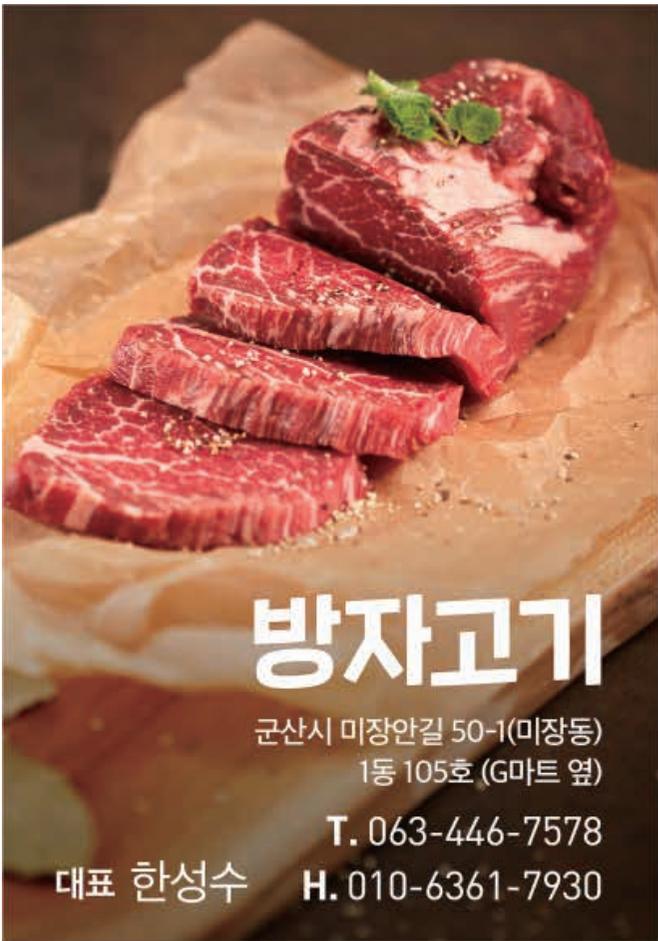
M. 010-8298-5758

T. 063-471-7181

E. jbguitar@naver.com

전북 군산시 나운로4 현대코아빌딩 201호





방자고기

군산시 미장안길 50-1(미장동)
1동 105호 (G마트 옆)

T. 063-446-7578
대표 한성수 H. 010-6361-7930

단프라BOX
도전성 SHEET BOX
플라스틱 골판지 SHEET BOX
대차(랙)
비닐팩(포장재) 제조
전문업체

O.P.T

Orient Polly Technology

에스제이오피티(주)
군산시 산북로 71-32(산북동)

T. 070-4107-7800 / 063-442-3503
H. 010-7168-0877
대표 서진석 H. 010-9264-5001



세미나 / 회의 행사 / 교육에 필요한 공간으로 사용하세요

DAHO 301

SEMINAR & MEETING

수호콜 스카이

간판 / 건물 외벽작업
페인트 / 유리 / 지붕 공사
자재 상하차

대표 심희훈
H. 010-4729-8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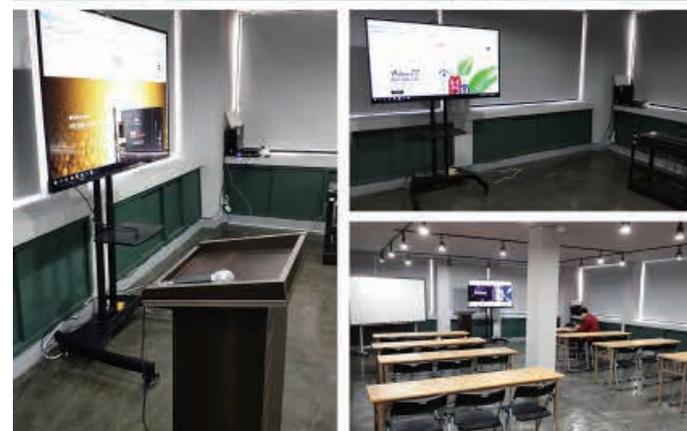
mazing Big Cup



에이비씨커피 소롱동아점

군산시 동아로 147 (산북동)

T. 063-466-6804



Guest House 

3F 공간대여

세미나 · 회의
강의 · 교육 · 모임
행사 · 프라이빗 파티

게스트하우스 다호
전북 군산시 영화동 22-5
M. 010-9725-8810



커피와 식사,
그리고
로맨스



COFFEENIE
CAFE

커피니 군산대 원당점 군산시 원당길 73-5 T. 063-466-8599



군산이 당신의 기억을 힐링해 줄까야

군산에
귀한손님이 오시면
일제강점기 가옥
게스트하우스 이웃에
모시면 좋습니다

히로쓰가옥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데크에서
한가로운 저녁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영화 군산 : 거위를 노래하다 촬영장소

GUESTHOUSE
IUT



010-4048-8811

전북 군산시 구영1길 11-2 (군산시 신흥동 57-10)
blog.naver.com/chunulumi



구독문의

매거진군산은 월간지로서 자택에서 편하게 우편으로 받아보실 분께 서는 **본 지 마지막페이지에 CMS 구독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063)445-185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입금처 신한은행 110-180-087549
예금주 이진우 (아이씨एम)

광고문의

매거진군산에 광고를 게재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광고 마케팅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광고마케팅 부서 (063)445-1856

기사제보

주변의 즐거운 이야기와 흥미로운 인물 등을 매거진군산에 제보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 매거진군산과 편집의도와 방향이 어울린다면 누구나 자유기고가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글, 멋진 사진을 보내주세요.

282pyk@hanmail.net

매거진군산에 독자의견을 보내주세요.

매거진군산은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어떤의견이든 관심합니다. www.maggun.com의 독자의견에 올려 주시거나 282pyk@hanmail.net에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맥군 후원 업체

- 오죽일식_식사권 / 063-464-5625
- 발렌타인피자_블고기피자 테이크아웃 / 063-442-4886
- 노가리&비어 (수송점)_세트안주 이용권 / 010-6542-5782
- 곱창이최고예요 (수송점)_곱창 1인분 이용권 / 050-7900-0803
- 도마 (수송점)_돼지한마리 세트 / 063-471-0023
- 바나나팩토리_커피 음료권 / 063-452-9479
- 8월의크리스마스_커피 음료권 / 010-8928-3481
- 소셜여행 커피샵_커피 음료권 / 063-446-9466
- 달 커피샵_커피 음료권 / 010-9548-3383
- 철길마을 우리문방구_사진매직거울 / 010-3556-2564

매거진군산에서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협찬하시고 싶은 업체는 연락 바랍니다.

<맥군의 오타를 잡아라!>

맥군의 오타자를 찾아 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연락처와 주소를 기재하여 보내주십시오.

E-mail 282pyk@hanmail.net **Fax** (063) 446-1856



Vol.121 | 2021.04

	회장·대기자	이 북	bok9353@hanmail.net
	발행인	이진우	jay0810@hanmail.net
	편집장	채명룡	ml7614@naver.com
	디자인	박유경	282pyk@hanmail.net
		이경호	kyungho159@naver.com
	주간	오성렬	poi3275@naver.com
	편집위원	김혜진	kimhyejin0324@hanmail.net
	편집위원	최승호	gsport11@naver.com
	편집위원	박청숙	njpcslife@gmail.com
	편집위원	이현웅	gunsanmusic@daum.net
편집위원	김정인	jbct20102@jbct.or.kr	
컬럼니스트	남대진	bitsori454@daum.net	
컬럼니스트	온승조	gsforum@hanmail.net	

제작 ICM (063)445-1856
주소 전북 군산시 큰샘길1
출판신고번호 467-2011-000002
인쇄 진영인쇄 (063)446-7801
온라인 웹닉스 (063)453-5430

매거진군산은 www.maggun.com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매거진군산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거진군산은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타간행물사업 신고 번호_군산 라 00007 / 매거진군산은 군산사람들과 군산의 라이프스타일을 코디해주는 오직 군산사람들을 위한 잡지입니다.

MAGAZINE GUNSAN COLUMNIST

매거진군산 컬럼진



김선화
군산 YWCA 사무총장
군산시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위원
전)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ywcags@daum.net



김용환
호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심의위원
전) 군산시발전협의회 의장
kyh@howon.ac.kr



김은정
군산시문화센터 센터장
군산경찰(전) 사무국장
전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팀장
goni-ej@hanmail.net



김종우
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한국환경공단 기술자문위원
전) 군산시 수도위원회 평가위원
kij466@kunsan.ac.kr



김희진
고창군 로컬잡센터장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정책기획실장
전북자동차포럼 사업차장
hjinland@naver.com



박수진
군산 노인종합복지관 부관장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위원장
한국노인복지실천연구회 수석부회장
yiyisusu@daum.net



박양기
군산시민예술촌 총장
전)진포문화예술원 원장
pygdrum@hanmail.net



박홍근
군산대학교 겸임교수
샬롬-Info 대표
군산소룡초등학교 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whitelove0208@naver.com



서영미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호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전북 시군교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장
sym@howon.ac.kr



송재복
(사)전북미래연구원장
전) Stanford University 객원교수
sjb0814@hanmail.net



심인보
호원대학교 관광레저학부 교수
군산시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전) 전라북도 균형발전위원회 위원
sib@howon.ac.kr



안태욱
군산시 청년플 청년센터 창업센터 센터장
helloceo777@gmail.com



윤영민
군산대학교 해양산업운송과학기술학부 교수
군산대학교 기획부 처장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연구원
youn@kunsan.ac.kr



이강휴
군산 휴내과 원장
길 위의 청년학교 이사장
군산시 의사회 편찬위원
jdreamer0805@naver.com



임병식
연합뉴스 정치패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연구회 상임 부회장
아주경제 논설위원
montlim@hanmail.net



임용택
군산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군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세계인명사전 부총재
lot@kunsan.ac.kr



정건희
군산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babogh@daum.net



정동원
군산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 교수
SC 32 국내전문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정보기술학회 부회장
djeong@kunsan.ac.kr



채호식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연구원장
국토부 중앙심의위원회 설계심의위원
한국수자원학회 이사
chyosok@gmail.com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전북미래교육연구 소장
cheon422@jnu.ac.kr



최연길
군산 노블한방병원장
전) 신명한의원 원장
전) 군산시한의사회회장
chshch@hanmail.net



최연성
군산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교수
군산시 정책자문단장
군산발전포럼 의장
yschoi@kunsan.ac.kr



최윤
군산대학교 해양생물공학과 교수
전) 한국어류학회 회장
전) 한국수산과학총연합회 회장
choi@kunsan.ac.kr



황진
군산 중앙치과 원장
군산시민정치포럼 상임대표
전)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byul-bada01@naver.com

우리 사회의 병폐,
부동산 투기

최근 부동산 투기로 우리 사회가 시끌시끌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든 상황 속에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국민에게 분노와 실망을 안겼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불거진 공직자 투기 의혹이 민주당 소속 의원, 청와대 관계자까지 번지며 급기야는 공무원과 그 가족, 심지어 지방의원들에게까지 의혹이 번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관련 인사의 경질, 민주당 지도부의 대국민 사과 등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여론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의 참패로 결론났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바라보는 민심이 반영된 선거의 결과다.

LH 투기 사태가 불거진 이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0%에 턱걸이하고, 부정평가는 70%대에 육박하고 있다. 긍정·부정평가 모두 文 정부 출범 이후 최저·최고점을 경신했다.

부동산 투기는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도시의 확장으로 개발이 되면서 부의 축적 수단으로 자리해 가진 자들의 잔치로 전락한 지 오래다. 근로의욕을 떨어트리고 경제 성장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할 리 만무하다. 결국, 부동산 투기는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만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병폐인 셈이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확대, 부동산 투기 처벌 강화 등 내놓고 지방의회도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신고센터 운영,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 구성 등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가 경제, 사회 구조적 문제들을 심각히 고민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이번 계기를 통해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사회 부동산 부패를 끊어내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매거진군산 회장
전 군산시의회 의원
이복

조회 시간

김개미

담임 선생님이 뒷짐을 지고 다닌다

가만히 있는데도

가만히 있으라고

떠들지 않는데도

떠들지 말라고

딴 생각 안 하는데도

딴 생각 하지 말라고

매미만 나무 그늘에서

귀를 찌르고 우는 아침,

교장 선생님은 좋겠다

교장 선생님 말씀 안 들어서

<아이없는 놈> 문학동네. 2013

동심을 노래한 시 중 어린이가 쓴 시를 어린이 시라고 하고 어린이 시와 구별지어 어른이 쓴 시는 동시라고 합니다. 여기 어른이 되고 싶은 아이와 아이가 되고 싶은 어른이 함께 읽으면 좋을 동시를 전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안부를 건넵니다. 편안 하신지요. 그리고 부디 편안하시길요.

어른들에게는 재미있게 읽힐 동시지만 요즘 아이들은 아마 이 시가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학교는 이제 전교생이 모여서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조회 시간을 갖지 않거든요. 또 이렇게 오래 말씀하시는 교장선생님도 안 계시고요. 그보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어떤 분이지도 잘 모를 거예요.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읽는다면 ~라떼는 말이야 하고 그 옛날 <조회 시간>에 대해 들려주시겠지요. 여전히 아이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고요.

신재순
시인 / 전북작가회의, 한국동시문학회 회원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세상

‘유황(硫黃)이 가져온
신기술 농업 혁명’

나라바이오(주)

김일호 대표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최근 오식도동 소재 나라바이오(주)의 성공 신화가 화제다. 다수의 언론매체와 학술지, SNS에서도 소개가 끊이지 않는다.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표방하며 친 자연 유기농업자재 개발에 성공을 거두면서 국내 농업현장에 일대 혁신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농촌은 나라바이오의 생산품에 힘입어 농약이나 화학비료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면서도 풍부한 작물을 생산하게 되었다며 환호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일까, 나라바이오의 소비자들 수천 명으로 자체적 유료 팬클럽이 결성된 것도 국내에서는 전대미문의 사례로 놀라움을 준다.

지난 4월 2일 오식도동 컨벤션센터에서 ‘나라바이오(주)의 창립 3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송하진 도지사, 신영대 국회의원의 축전과 지역 유력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MBC 김차동, CBS 양송희 아나운서의 사회로 거행된 이날의 행사는 회사 소개 영상 및 생산제품 소개, 김일호 대표의 인사말, 내빈 축사, 학술발표, 팬클럽(모사모) 소개, 직원 금배지 수여,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3년 전 전주에서 자본금 불과 5천만 원에 직원 8명으로 출발한 나라바이오가 창립 3년 차를 맞는 올해 150억 원의 매출 목표에 직원 50여 명의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지난했던 과정을 설명한 김 대표의 인사말은 왜 그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어 참석자 모두로부터 응원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인생을 바꾼 유허과의 만남

대전이 고향으로서 공직에 몸담고 있던 김일호 대표가 처음 사업에 뛰어든 것은 IMF 직전이 었다. 안정적인 공무원을 사직하고 사업에 나설 때 주위의 우려도 컸지만 워낙 필이 꽃하면 몰두하는 성격이다 보니 고집스럽게 밀고 나갔다. 삼성전자 납품 협력업체로 한때는 잘나가 기도 했다. 하지만 워낙 사업 경험도 없고 준비성 없이 무모하게 벌인 그 사업은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지도 않은 IMF를 만나 부도를 맞고 만다.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된 그는 급기야 노점상 신세로 전락하여 거리에 나왔었다.

이때 우연히 알게 된 유허, 당시만 해도 이것이 오늘날 자신을 농업 분야 성공 신화로 이끌어 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는 유허의 특수한 성분과 기능에 주목했고 알면 알수록 깊은 호기심에 빠져들었다. 그는 유허오리처럼 유허돼지 사육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번 물 입하면 파고드는 성격이어서 오죽했으면 꿈속에서도 사업 구상 그림이 그려질 정도였다. 하지만 사업 초기에 이 역시 어이없는 사기를 당하고 또 한번의 쓴맛을 보게 된다.

민간요법으로 잘 알려지다시피 유허은 항암, 항충, 항균, 혈류증강효과 외에도 해독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모든 의약품의 원료로 쓰이는 물질이다. 김 대표는 이를 잘 이용하면 농약을 대체할 수 있고 식물의 성장 발육을 돕는 친환경 비료로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사실 기존의 농약은 인체는 물론 식물과 토양 자체에도 유해한 골칫거리였지만 어쩔 수 없이 써야만 하는 필요악이었고 오랜 기간 화학비료에 찌든 토양 역시 식물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모두 극복할 수 있는 천연 물질의 개발은 재배 산업에 일대 신기원이 되리라 확신했다.



인사말 하는 김일호 대표



유허은 크게 식물성과 동물성, 광물성으로 분류되는데 한약재로 쓰이는 식물성이나 우황청심환의 원료이기도 한 동물성은 가격이 고가인 반면에 원유 정제 과정에서 추출되는 광물성 유허은 비교적 저렴하여 사업성이 있어 보였다. 하지만 고체인 유허을 액체로 용해하는 기술이 당시 국내에 없었다.

이렇게 용해된 유허액을 미생물과 결합시켜 독성을 제거하고 발효시킨 뒤 나노기술로 잘게 쪼개 식물 흡수율과 전도성을 높이는 물질이 만들어졌다. 지금껏 국내 농업 분야에 없던 전혀 새로운 혁신적 기술이 탄생한 것이다.

김 대표는 즉시 제품 생산에 착수했다. 거둬들인 시행착오 끝에 성공을 거둔 유기농자재 ‘모두싹’과 더불어 작물 생육 및 토양개량제 ‘땅부자’는 초기 판매에서 농민들로부터 53% 이상 증수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유기농자재 두 제품을 공시 등록하고 2018 창립 첫해 5개월 만에 8억 7천만 원의 매출 실적을 거두기에 이른다. 학술적 토대 구축은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유허 연구 전문 교수에 의뢰했다. 과학적 근거가 입증되지 않고는 사회적 인정은 물론 특허출원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로써 창업 2년 차인 2019년도에는 44억 2천만 원, 3년 차인 2020년도에는 오식도동 현 위치에 연간 평 2,300평(부지 14,000평)의 공장을 100억 원에 인수, 70억 6천만 원이라는 괄목할 매출을 기록하고 올해 목표 150억, 3년 후인 2024년도 5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전망하면서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모두쌩(병해충 방제 및 생육 촉진)

‘모두쌩’은 나라바이오의 대표적 주력 브랜드다. 김 대표에 따르면 모든 병충해를 모두 썩 없앤다는 의미에서 제품명을 지었다는데 될성부른 나무는 썩수부터 다르다는 뜻에서 모든 식물의 건강하고 튼튼한 썩을 지향한다는 뜻이 함축된 듯도 하다. ‘모두쌩’은 ‘모두쌩칼마’와 ‘모두쌩균’, ‘모두쌩아미플’ 등 용도에 따라 여러 종류로 생산되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혼용함으로써 유향의 촉매작용으로 칼슘과 마그네슘, 미량요소의 흡수율을 높여 생리장해 경감과 회복 도움으로 잎의 황백화 현상 예방 및 방제효과는 물론 생육 촉진에도 탁월한 효과를 도출해내고 있다.

제품의 특징으로는 다중부위 활성살균, 물질결합, 물질운반, 흡수이동경로 등 황의 과학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26개 작물 34종의 병해충방제 효과를 공시한바 있고 방제 외에도 생육을 증진시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가능케 되었으며 엽면시비와 관주 처리를 병행함으로써 효과를 증대시킨다.

-26개 작물 34종 병해충-

작물별 병해충의 대표적 증상을 보면 고추 탄저병·목화진딧물/토마토 배꼽썩음병/딸기 틸번현상/배추 무름병·뿌리혹병/오이 곡과(휘어짐)현상·노균병/마늘 무름병/토마토 잎곰팡이병·온실가루이/참외 흰가루병/멜론 흰가루병/벼 잎짚무늬마름병·잎도열병·흰잎마름병·키다리병·이삭누룩병/수박 목화진딧물·점박이응애/감 탄저병/시금치 노균병/인삼 점무늬병/고구마 덩굴썩음병/파 흑색썩음균핵병/포도 흰가루병/감귤

잿빛곰팡이병/오미자 흰가루병/복숭아 잿빛무늬병/사과 탄저병·고두현상/배 검은별무늬병/양파 흑색썩음균핵병·노균병·무름병/오디 균핵병 등이다.

-모두쌩 사용 기준 및 사용방법-

과수류(사과, 배, 감귤, 자두, 복숭아, 단감, 포도, 블루베리 등), 엽채류(배추, 상추, 시금치, 부추, 양배추, 곰취 등), 곡물류(벼, 보리, 콩, 수수, 땅콩, 옥수수 등), 근채류(당근, 인삼, 더덕,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무 등), 과채류(고추, 토마토, 오이, 딸기, 애호박, 참외, 파프리카 등), 기타류(화훼 및 기타 작물)로 전 생육기간(칼슘, 마그네슘이 우려되거나 발생시) 7~10일, 1~3회 엽면(葉面)시비, 또는 관주한다.

‘땅부자’

‘모두쌩’과 더불어 작물 생육 및 토양개량용으로 출시된 제품 ‘땅부자’역시 썩겨와 운모, 유향을 주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한 국식물환경연구소의 작물재배시험에서 상추의 경우 53% 이상 증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친환경 신물질 비료로 각광을 받고 있다. ‘땅부자’는 펠릿형 제품으로 토양 혼화 작업이 용이하고 물에 쉽게 풀어지게 되어 있으며 황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토양개량 및 작물 생육용 자재로 유기농산물 생산에 최적화된 제품이다.

단 제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미부숙 퇴비와 혼용하지 말 것, 타 유기질 비료와 혼용 시 노지 7일, 하우스의 경우 15일



임직원 기념촬영

이전에 사용할 것, 작물 및 토양의 상태, 주변 환경에 따라 사용량을 가감할 것, 상토 및 묘상에 사용하지 말 것, 그늘지고 시원한 곳에 보관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국제 학술논문 게재(유럽 IJMM, 2020건국대학교 유전학 연구팀)

모두쌩의 제독유향, 즉 NTS는 생물에 주입하게 되면 24시간 이내에 STAT5단백질을 자극시켜 인산화 과정을 거치며 세포 핵막을 통과하여 핵 속으로 이동하게 된다. 인산화 된 STAT5와 IGF-1유전자가 결합하고 IGF-1유전자 발현 증강으로 성장호르몬(GH)의 신호전달을 유도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NTS가 성장호르몬 신호 전달 능력을 향상시켜 유전자 최종 산물인 단백질 IGF-1, pSTAT를 대조군에 비해 각각 2.5배, 4.5배씩 증가하게 하였다.

NTS는 IGF-1유전자인 성장호르몬(GH)을 유도하여 식물의 세포 활성을 촉진하고 바이러스와 각종 병충해에 강한 작물로 자라도록 도와준다.

제품 개발 배경

최근 식량안보라는 말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와 무관치 않다. 지구 온도 상승은 해수면을 높여 육지를 침식시키고 폭우, 폭설, 산불, 전염병을 비롯하여 목초지의 사막화를 가속화시킴으로써 식량 생산 농지를 사라지게 하고 있다.



인사말 하는 모사모 박석배 회장



노모를 포옹하는 김일호 대표



직원 금배지 수여

이러한 재앙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하지 않는 한 생각보다 빨리 닥칠 수 있다는 게 인류학자들의 경고이기도 하다. 따라서 향후에는 부족 간, 국가 간 영토나 종교로 인한 전쟁보다는 식량을 두고 벌이는 전쟁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미래에 대비해서라도 충분한 식량 확보는 다른 그 무엇에 우선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 안보 요소가 아닐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증산해내는 것, 그것은 지구상 모든 국가의 당면 과제가 될 것이다. 김일호 대표가 이렇게 농업 분야 사업에 매진하게 된 것도 앞으로 농업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그러자면 지금의 농업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이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농약만 해도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이의 살포로 인해 토양을 오염시키고 이 농작물을 섭취하는 소비자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개선할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2002년도부터 유황 연구에 천착하여 어느덧 유황박사로 불리기도 하는 그는 기존 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방제제와 토양과 식물 모두를 건강하게 가꾸면서도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물질 개발로 농업에 혁신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점에 착안했고 그 원료를 유황에서 찾은 것이다.

모두씩 유황 '단미사료'

김 대표는 유황과 미생물 대사물질을 결합시키는 기술을 바탕으로 유기농 자재 개발에 성공을 거듭으로써 다양한 식물의 병해충을 해결, 생산농가 및 소비자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축산업에도 사업 역량을 축적하여 가축의 질병, 분노, 약취의 해결이 가능한 단미사료 생산까지 성공하고 있다.

축산 분뇨 약취 원인으로는 가축이 섭취한 사료를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미처 소화되지 못한 유기물을 미생물들이 분해하면서 메탄포에탄, 황화수소, 질산성 암모니아 등의 가스가 발생되거나 체내 소화 중 단백질의 소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황화수소 가스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제독유황을 섭취시킴으로써 약취 원인 중 하나인 지방의 과산화 물질을 억제하고, 소화기관의 손상된 세포를 빠르게 복구함과 동시에 장의 연동운동을 회복시켜 소화를 도와 단백질을 분해, 축분에서 잔여 사료가 보이지 않고 약취 및 분변량의 현저한 감소 효과를 보인다.



또한 가축의 면역력 증강 부분에 있어서도 혈액 내 백혈구와 헤모글로빈의 증가로 에너지 대사가 높아짐으로써 외상에 대한 치료 및 각종 질병에 대한 면역력 향상으로 항생제 사용을 최소화하게 된다. 따라서 단미사료로 사육된 돼지의 경우 불포화지방산이 현저히 증가하게 되며 육질이 비계 부분까지 쫄쫄득득하고 가열 후 감량 정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약취문제 해결로 민원 감소 및 분뇨 활용이 가능해지고 면역력 강화로 고품질 가축의 생산에 따른 수익성 증대 역시 단미사료의 강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회사부설연구소

나라바이오의 부설연구소는 양영목 연구소장을 필두로 장경진 박사, 강동영 박사, 니핀 박사 등 건국대 의대 유전학 연구팀, 그리고 회사 내 분자 생물 연구진으로 진용을 갖추고 '모두씩'관련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연구,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적 노력으로 SCI급 국제 학술지인 영국의 IJMM에 '모두씩'의 원천기술인 NTS가 세포의 활성도를 2.5배 내지 4.5배 이상 증가하게 한다는 내용과 스위스의 의료전문 과학 저널 MDPI에는 고혈당 쥐의 세포에 NTS의 투여로 항염 효과가 4배 이상 증가했다는 논문을 출간한 바 있다.

최근에는 유럽의 분자의학저널 MMR에 NTS가 인간의 세포배양 시험에 성공, 항염 효능이 입증되었다는 논문을 발표하는 등 '모두씩'의 과학기술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으며 현재 미발표 논문 5편 이상이 완성을 앞두고 있다.



생산라인



공정을 설명하는 이용희 기획실장





또한 이와는 별도로 서울대학교 동물자원학과, 단국대학교 축산학과, 원광대학교 식물병리학과에서도 동·식물에 있어서 '모두씩'의 작용기전에 대한 과학적 가치와 근거를 입증하는 연구논문 3편이 추가 완성단계에 있다.

유튜브 채널 :모두씩TV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산 농민 및 소비자 와 직접 소통을 즐기는 김 대표는 자사 제품들이 농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체험하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농장을 방문하기도 한다. 어느 농민은 “모두씩 제품을 쓰면서 병충해 방제와 생산량 증대로 너무 감동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품을 개발해 주신 나라바이오에 감사드린다.”고 들려줘 김 대표의 마음을 흐뭇하게 했는데 이에 김 대표는 “여러분의 착한 마음들이 착한 농산물을 생산해내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최선을 다 해 농촌 경제에 기여하고 싶다”고 훈훈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투자문의 쇄도

최근 NAVER에서도 제품 설명 영상 검색순위 1위를 기록한 '모두씩'은 좋아요 14,000개를 비롯한 수많은 댓글이 넘치고 있다. 직접 사용해봄으로써 효과 입증을 경험한 소비자들의 앞 다퉈 SNS 전파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 투자 문의도 쇄도하고 있어 투자자의 선별을 놓고도 김 대표는 행복한 고민에 빠져있다.

팬클럽 '모사모'('모두씩'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나라바이오는 2019, 11월 약 1,000명으로 '모두씩'을 적극 지지하는 팬클럽이 출범되었다. 기업에 소비자들로 팬클럽이 결성된 것은 국내 유례없는 일이다. 출시된 제품은 '모사모'에 우선적으로 공급됨으로써 소비 농민들의 자부심을 높인다. 이에 따라 전국을 망라하여 농민들로 결성된 '모사모'는 현재 6,5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것도 일정 회비를 내는 유료 회원이었는데 놀라움을 준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SNS에 모사모 밴드를 개설하고 서로 간 정보교류와 모니터링으로 제품 개발 및 성능 향상에 기여한다.

회원 1인당 만 원씩만 각출해도 무려 6,500만 원이다. 이렇게 걷힌 회비는 군산시에 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부하기도 하고 평소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며 저마다 지역에서 조용한 선행을 실천함으로써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전국의 2천여 대리점과 농협에서도 '모두씩'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고 판매에 앞장서고 있으며, 김 대표 자신도 2021.2월 500만원, 모사모에서 1,000만원, 대야면 유희영 농가에서 5kg 쌀 200포를 기꺼이 후원한바 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술, 가슴이 따뜻한 인간 존중의 기업

김 대표에게 평소 경영 철학에 대해서 묻자 “우리 회사는 안으로는 실질적 복지와 충분한 보상, 남다른 인권경영으로 직원 여러분과 생사고락을 함께 할 것이다. 밖으로는 모사모 회원 등 농민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 우리 농촌을

유럽의 부농처럼 저택을 지니고 미래예측이 가능한 농업을 펼쳐나가게 할 수 있을지 스스로 매일 묻고 답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들려준다.

또한 “이제 농민은 더 이상 노동자 계급이 아니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고마운 생명과학산업의 역군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일을 계속할 생각이다”라고 부연하면서 “농민의 근심 걱정은 더 이상 농민 스스로가 해결해야 하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깨닫도록 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한다.

기분을 안전에 두고 기능성 물질이 높게 함유된 고품질 농산물을 찾아내어 도시의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써 농민이 소비자와 직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도 조기에 시작할 예정이라는 김 대표, 돌이켜 보면 자신의 오늘이 있기까지 도움을 준 많은 분들, 특히 사업 초기 12억 원이라는 거금을 선뜻 빌려준 지인에서부터 심적, 물질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그 한 분 한 분 모두가 자신에게는 소중한 자산으로 남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간 사랑 중심의 경영으로 국가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말을 남길 때의 표정에서 남다른 진지함이 묻어난다.

인터뷰 말미에 김 대표에게 '성공 여부도 불확실한 사람에게 12억 원이나 선뜻 빌려준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지인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지금 생각해도 그 사람도 참 나만 큼이나 무모하고 대책 없는 사람'이라면서 웃음을 보이는데 말은 그렇지만 그 지인으로서의 평소 김 대표의 인간적 진실됨, 추진력, 가능성 등을 일찍이 알아보았기에 주저 없이 도왔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이 어렵지 않다.

이제 올해 목표 매출 150억 원을 향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김 대표, 지난해 제12회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 혁신대상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기술혁신부문)', '(주)헤럴드' 대한민국

국 혁신인물(기업·기관)브랜드 대상', 시사투데이 '올해의 신한국인 대상' 한국스포츠크경제 '고객감동 혁신기업 대상' 스포츠서울 '이노베이션 기업&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데 어느 인간관계에서나 항상 솔직하고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를 '참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기억한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직접 세심히 챙기며 화기에애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직원을 가족같이 여기는 그는 지난 3주년 행사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모두씩 금배지'를 수여, 직원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생산1공장 김란희 사원은 “우리 회사는 근속 1년차 금배지 2돈, 2년차 3돈, 3년차 5돈을 각각 받는다. 저는 지난해 2돈을 받고 이번 3주년 기념식에서 3돈을 추가로 받았다”며 “앞으로 회사가 더욱 번창하고 저도 열심히 근무해 내년에는 꼭 추가로 5돈을 받겠다”는 재치 넘치는 포부를 밝혀 격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자체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해 끊임없이 신기술을 개발하는 가운데 수많은 특허와 인증을 취득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 양산, 나라바이오의 생산 공장은 이를 위해 오늘도 쉼 없이 가동되고 있다. 지금의 6,500명 '모사모' 회원도 머잖아 만 명을 넘어 언젠가 수십만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투자 희망자도 넘쳐 회사의 미래는 장밋빛이다. 나라바이오의 선진기술로 더욱 활기를 띠게 될 우리나라 농업, 언젠가 세계 농업 시장에 진출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나라바이오 연구실의 불은 꺼지지 않을 듯 하다.

나라바이오(주)
군산시 서해로237
T. 063-1522-7008





구지은 대표이사, 강새하 재무이사



고양이 아로마테라피 자격증



길고양이들의 쉼터 사단법인 묘연

길고양이 보호·입양 지원, 중성화
유기동물 인식 개선 활동

글 | 김혜진(편집위원)
새군산신문 기자
kimhyejin0324@hanmail.net

반려동물 천만 시대,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버려지는 동물들 역시 하나의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심각하게 다치거나 3개월 미만의 구조된 고양이는 401두수에 달한다.

사단법인 묘연(대표이사 구지은)은 사연 있는 길고양이유기묘들의 천국이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묘연은 ‘고양이와의 인연’을 뜻한다.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던 고양이들의 남은 묘생(猫生)을 함께 할 반려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을 이어가고자 2020년 2월 만들었으며, 같은 해 12월 사단법인을 신청했다.

“길고양이 쉼터를 운영하고, 길고양이 보호·입양 지원, 유기동물 인식 개선 활동, 캣맘·캣대디 지원, 군산시 TNR 위탁 사업(길고양이 중성화) 등을 합니다. 구조하고 싶지만 가족들이 있거나 다른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어 집안의 상황이 여의치 못한 경우에 구조한 고양이를 임시 보호하여 함께 돌보기도 합니다.”

이곳은 대략 30여 마리의 고양이들이 있다. 어미 고양이가 출산한 지 며칠도 안된 채 갑작스럽게 돌연사하여 탯줄 그대로 달린 채 길에서 발견된 새끼 고양이들, 한겨울 차에 치여서 다른 차의 엔진룸에 들어가 급하게 구조된 길고양이, 심한 구내염을 앓고 있어 치료가 시급한 길고양이, 교통사고를 당해 후지 마비 상태가 된 아기 고양이, 발견 당시 귀가 뜯겨 있는 상태로 과사와 염증이 심각했던 길고양이 등 이름 모를 고양이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지니고 있다.

쉼터는 고양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거실과 길고양이, 유기묘들을 위한 4곳의 방, 그리고 집중 케어를 위한 방 1곳, 케어하는 회원들과 봉사자들을 위한 휴게실, 공공 업무와 서류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무실, 반려동물 인식 개선을 위한 꾸준한 활동이 이루어질 교육실로 이뤄져 있다.

총 8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체온 유지가 중요한 고양이들을 위해 온·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방에 이중 창문과 보일러를 설치하여 보다 쾌적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단장했다.

구지은 대표이사과 강새하 재무이사는 “다양한 활동의 주 목적은 길고양이들의 인식 개선”이라고 했다.

구 대표와 강 이사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즈음에는 고양이들의 습성을 모르고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아 집고양이가 경우가 많았다.



청소년배움터 자몽과 함께하는 길고양이 겨울 집 만들기



그 당시만 해도 키우는 동물들을 ‘반려’가 아닌 ‘애완’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1년에 서너 차례 발정기가 오는 고양이들의 특성을 간과했던 것이다.

그 결과 무심코 문을 열어 놓다가 그대로 밖으로 나가거나 발정기 특유의 울음소리가 듣기 싫어 일부러 유기하는 경우가 늘었고, 집고양이들이 길거리로 유입되면서 길고양이 개체 수가 크게 늘었다.

유기동물도 매년 줄지 않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매월 평균 100두가 넘는 동물들이 유기되고 있으며, 지난해 구조된 유기묘는 총 401두에 달한다. 귀여워서, 외로워서 데려오지만 다양한 이유로 버림받고, 사람들의 편견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다.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길고양이 인식 개선 프로그램 진행의 경우 많은 효과를 보았어요. 길고양이를 ‘도둑고양이’, ‘무서운 친구’, ‘밥을 많이 먹어 똥똥한 친구’로 생각했던 학생들이 교육 후 ‘길고양이도 소중한 다’, ‘살짝 무서웠는데 이젠 잘 도와야겠다’, ‘살찐 것이 아니라 부은 것’ 이라는 생각들로 바뀌며 동물들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 군산청소년자치배움터 자몽과



함께 길고양이 겨울집 만들기, 길고양이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고양이들이 차가운 길에서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겨울 집을 만들었고요.”

TNR위탁사업은 길고양이를 안전한 방법으로 포획(Trap)한 뒤 중성화 수술(Neuter)을 시켜 포획한 장소에 다시 방사(Return)하는 것으로, 현재 가장 효과적이고 인도적으로 길고양이 개체 수를 조절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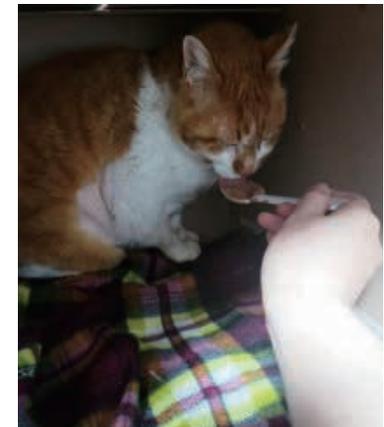
“길고양이 개체 수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TNR을 통해 반복되는 출산을 막고, 다른 지역에서 길고양이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정 수의 길고양이가 영역을 확보하게 해야 합니다.”

군산시는 2020년도까지는 민원 위주의 산발성 TNR을 실시했으나 2021년에는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에 더 효과적인 군집별 TNR을 실시하는 동시에 모니터링과 군산시 수의사협회의 주도로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을 위한 접종까지 실시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길고양이들의 수명은 평균 2~3년 정도다. 하지만 이마저도 ‘자연 사했음’ 경우이다. 아기 길고양이들은 혹서기 기간 장마와 전염병으로 혹한기 기간 한 파와 동사로 일찍 생을 마감하기에 실질적인 수명은 8개월 내외에 불과하다. 길고양이 학대, 세계 문은 사료를 먹고 죽은 고양이 등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범 죄 표적이 되기도 한다.

이들은 “사람들이 고양이, 동물들과 공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들이 길고양이에 대한 편견 어린 시선을 거두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괴롭히는 것이 아닌, 그냥 봐 주는 것만으로도 기쁘다는 마음이다.

길 위의 고양이들을 물심양면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사람들이 군산에 있다는 건 좋은 소식이다. 군산지역 길고양이 보호구역 ‘묘연’이 고양이들의 동반자로 꾸준히 함께해 주길 바란다.



입양 및 봉사 문의
 연락처: 010-7696-9019
 인스타그램: cat_connection_
 카카오톡: catconnection
 페이스북: 사단법인 묘연
 네이버블로그: catconnection



아리울초 4학년 대상 길냥이 인식 개선 교육





선진의료시설, 전 과목 원스톱검진
-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 A등급 -

동군산병원 건강증진센터

이용길 센터장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지난 2016년 준공한 동군산병원 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 각 층 750평으로 3층 전체 면적 2,250평에 달할 정도로 관내 최대 규모의 쾌적한 시설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용률 증가에 따라 4층으로의 증축을 앞두고 있다. 이토록 센터의 이용률이 높아진 데에는 첨단 의료시설 확충과 여유롭고 쾌적한 환경도 요인이겠으나 무엇보다 모든 검진이 한 층 내에서 당일 원스톱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용객 위주의 서비스가 적중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센터에는 의사 13명과 간호사 35명을 비롯하여 임상병리사, 행정인력 등 약 9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소임을 다하며 밝고 부드러운 조직 문화를 가꾸고 있는 것도 센터의 발전에 큰 몫을 하고 있는 듯하다.

현재 센터의 1일 평균 이용 인원은 250여 명을 웃돌고 있다. 주로 군산시민들이지만 익산, 김제, 그리고 충남 서천,

장항, 보령에서도 방문하거나 군산과 인연을 맺은 고객들은 타지로 거주지를 옮긴 후에도 변함없이 찾아올 정도로 신뢰가 쌓이고 있다. 특히 군산시 관내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전체 90% 이상의 검진을 비롯하여 개인별 자비 검진율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일 정도로 센터의 역량 강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전문 상담 간호사들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환자 눈높이에 맞춰 친절할 안내를 병행하는 완벽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센터는 진료와 검진을 분리한 가운데 무엇보다 최상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결하고 편안한 공간 유지를 최우선으로 한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기본검사 및 선택검사를 실시,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빠른 조직검사로 암의 조기 발견 및 성인병 예방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검진 결과에 따라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신속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6개부서 및 여러 진료과 통합 운영

- **건강의학센터**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2명이 상주하면서 사업장 근로자들의 특수검진을 진행하는 가운데 건강주치의 역할을 담당.
- **종합검진센터** : 전문 상담간호사의 맞춤형 건강상담으로 검진을 설계하고 검진 당일에는 전문 코디네이터의 친절할 안내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검진의 모든 것을 책임짐으로써 고객만족도 배가.
- **국가암검진센터** :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국가 암에 있어 전문상담간호사들이 고객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건강상담을 진행.
- **내시경센터** : 센터장을 중심으로 소화기내과 전문의 3명이 치료내시경까지 함께 진행.
- **영상의학센터** : 일반 X-ray, 유방촬영, 골밀도, 초음파, CT, MRI까지 모두 갖추고 고객의 동선이 일반 환자와 겹치지 않도록 배치.
- **CM센터** : 검진 예약 전담 상담직원이 상주, 전화예약을 접수하며 결과 상담 및 진료연계담당 상담간호사가 배치되어 유소견 사후관리 및 모바일솔루션 도입으로 모바일 문진표 작성 및 결과 발송.

모바일 프로그램 도입

기존의 종이 문진표 작성을 휴대폰 모바일 양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그 결과를 이메일과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 구축. 이 프로그램의 이용은 검진예약 접수 후 검진 1주일 전 문자발송(모바일 문진표 작성 및 주의사항 안내)을 하게 되는데 안내에 따라 이 문진표를 작성하여(미 작성 시 관리자 확인 후 재요청 문자 발송)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문진표 작성 여부 확인 후 검사 진행) 결과를 수검자에게 문자로 통보함으로써 모바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예약 방법(전화예약, 방문예약)

- 준비사항 :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
- 예약장소(방문예약) : 동군산병원 신관2층 건강증진센터
- 예약장소 (전화예약) : 검진종류 확인 후 상담 요청
- 예약상담 대표번호 : 063)440-0777 / FAX 063)440-0794 *팩스 전송 시에는 예약 여부 확인 필수

선택검사 내비게이션

- **전신 암 검사(PET-CT)**
 - 암이 의심되거나 그 부위의 조직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울 경우
 - 가족력, 조기 암 진단, 암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
- **뇌졸중검사(두부MRI/지질검사4종)**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등 고위험군
 - 평소 숨이 차거나 기억력, 사고력의 감퇴 경우
 - 뇌졸중, 뇌심혈관계 가족력, 순환기질환 의심 경우
- **폐암검사(전선량 흉부CT/암표지자)**
 - 40세 이상의 흡연 및 흡연 경력자
 - 폐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 **소화기계 검사(위·대장 내시경/상복부 초음파/종양표지자)**
 - 평소 육류, 주류를 즐기고 비만인 경우
 - 간염 이력 및 간염보균자
 - 알코올성 간질환 및 지방간이 의심되는 경우
- **척추검사(경추MRI/요추MRI/경추&요추X-ray)**
 - 디스크가 걱정되거나 엉덩이에서 다리 쪽으로 통증이 있는 경우
 - 척추가 휘거나 비뚤어짐이 의심되는 경우





앞줄 중앙 이용길 센터장



· 관절검사(견관절·슬관절MRI)
(외래진료안내)

- 평소 어깨관절 부위에 통증이 있거나 운동에 제한을 받는 경우
- 이유 없이 무릎이 2회 이상 부은 경우
- 계단을 오르내리기 벅찬 경우

· 수면검사(수면 무호흡)

- 주간 졸림, 집중력 저하, 만성피로, 두통 등이 있는 경우
- 수면 중 코골이와 무호흡 증상

· 호흡기검사(저선량 흉부CT/호흡기 알러지 검사/폐기능/암 표지자)

- 결핵의 고위험군 및 가족력이 있는 경우
- 2주 이상 호흡기계 이상이 있는 경우

· 내분비계 검사(갑상선 초음파/갑상선 호르몬/골밀도/골대사 검사)

- 갑상선질환의 가족력, 골다공증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
- 폐경기 전후의 여성

· 심혈관계 검사(심장 초음파/관상동맥 석회화CT/지질검사4종)

- 45세 이상의 흡연자 및 흡연경력자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
- 심장질환의 증상 및 가족력이 있는 경우

· 남성검사(전립선 초음파/암표지자, 남성호르몬)

- 전립선 질환의 가족력 및 증상이 있는 경우
- 50대 이상의 남성

· 여성검사(질초음파/유방초음파/인유두종 바이러스/자궁경부 액상세포검사)

- 자궁, 난소암, 자궁내막증, 유방암 등의 증상이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 40세 이전 조기폐경의 경우

· 암유전자 메틸화 검사(16종 이상의 암을 한 번에 스크리닝)

- 뇌암, 구강암, 후두암, 갑상선암, 식도암, 위암, 폐암, 간암, 담낭(담도)암, 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피부암, 신장암, 방광암, 혈액암 등

종합검진 프로그램

(공단 검진을 동시 진행하는 경우 해당되는 금액만큼 할인가 적용)

· 기본종합검진 : 총비용(남629,140/여722,357)

할인가(남458,000/여523,000)

기초검사(문진, 신장,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 청력, 혈압), 체성분 검사, 흉부방사선검사, 심전도, 소변검사(10종), 혈액종합(빈혈, 간기능검사, 이상지질혈증, 당뇨, 췌장, 신장기능, 관절염, 전해질, 골대사, 갑상선 기능, 감염성 질환, 간염, 암표지자4종 등 60여 가지 항목), 위내시경, 상복부초음파(간, 담낭, 비장, 췌장, 신장), NK cell활성도 검사, 여성(유방촬영, 부인과 초음파, 자궁경부 도말검사)

· 소화기 정밀검진 : 총비용(남799,140/여905,662) 할인가(남577,000/여651,000)

할인가(남577,000/여651,000)

기본종합검진+대장내시경+여성(B-HCG)

· 소화기&심혈관정밀검진 : 총비용(남1,300,777/여1,407,299)

할인가(남928,000/여1,003,000)

소화기정밀검진+심장초음파+관상동맥칼슘CT+심부전조기진단(NT-proBNP)+경동맥초음파+동맥경화도

· 뇌혈관정밀검진 : 총비용(남1,389,140/여1,482,375) 할인가(남990,000/여1,055,000)

할인가(남990,000/여1,055,000)

기본종합검진+두부MRI & MRA

· 부모님검진(65세 이상) : 총비용(남2,286,571/여2,389,442)

할인가(남1,618,000/여1,690,000)

소화기정밀검진+심장초음파+심부전조기진단(NT-proBNP)+경동맥초음파+동맥경화도+뇌정밀검사(두부MRI&MRA)+치매선별검사(K-MMSE)+흉부저선량CT+갑상선초음파+골밀도검사+방광암표지자검사(NMP22)+남성(전립선초음파, 테스토스테론)+여성(유방초음파)

· 예비부부검진 : 총비용(남699,140/여932,160) 할인가(남507,000/여670,000)

할인가(남507,000/여670,000)

기본종합검진+갑상선초음파+여성(B+HCG, 유방초음파, 풍진검사)

· 청소년검진 : 총비용(남554,714/여555,912) 할인가(남406,000/여407,000)

할인가(남406,000/여407,000)

기본종합검진(위내시경 제외)+혈액형+스트레스 검사

· 남성·여성 정밀검진 : 총비용(남1,229,869/여1,455,246) 할인가(남878,000/여1,036,000)

할인가(남878,000/여1,036,000)

소화기정밀검진+흉부 저선량CT+동맥경화도+종양표지자(NMP22, Cyfra-21, NSE) 남성(경동맥 초음파, 전립선 초음파, 테스토스테론)+여성(갑상선초음파, 골밀도, 유방초음파, 액상 PAP, 인유두종바이러스, 종양표지자:CA15-3)

· 전신종합검진 : 총비용(남2,472,080/여2,677,457) 할인가(남1,748,000/여1,892,000)

할인가(남1,748,000/여1,892,000)

소화기정밀검진+흉부저선량CT+동맥경화도+종양표지자(NMP22, Cyfra-21, NSE) 남성(경동맥초음파, 전립선초음파, 테스토스테론)+여성(갑상선초음파, 골밀도, 유방초음파, 액상 PAP, 인유두종바이러스, 종양표지자:CA15-3)

· VIP숙박검진 : 총비용(남3,222,080/여3,427,457) 할인가(남2,498,000/여2,642,000)

할인가(남2,498,000/여2,642,000)

전신종합검진+PET-CT(Torso)/1박2일 VIP실 무료 숙박검진

첨단 의료장비 / 효율적 동선 배치 / 쾌적하고 밝은 분위기

필자가 취재차 처음으로 센터를 방문했던 날 일순 느낀 것은 대체로 복잡하고 어수선하기 마련인 일반 대형병원과 달리 큰 면적임에도 모든 진료실을 비롯하여 첨단의료장비들, 대기실, 회복실, 라커 등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여유롭게 배치되어 있고 하나같이 청결하고 쾌적하여 병원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였다. 입구에 설치된 코로나 안심콜 출입관리 안내에서부터 건강검진 순서도, QR코드 모바일문진표 작성 안내도 등에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음이 잘 드러나고 있고, 게다가 근무 직원들 모두가 하나같이 친절하고 표정이 밝아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생동감이 느껴졌다.

동군산병원은 평소 환자들을 위한 문화예술공연을 자주 열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는데 이는 물리적 치료 못지않게 정서적 치유에도 남다른 열정을 가진 방증으로 읽히는 부분이다. 정확하고 빠른 윈스톱검진, 친절하고 세심한 상담과 치료, 모든 것을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효율적 운용 시스템, 동군산병원의 건강증진센터가 왜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동군산병원 건강증진센터
군산시 조촌로 149
대표전화063)440-0300
대표팩스063)440-0310
응급센터063)440-0515~7

*운영시간
평 일:오전8시~오후5시(중식12:30~13:30)
토요일:오전8시~12시





맥팩토리 대표 이현우 트레이너

좌절과 절망의 순간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다

코로나 19에도 끄떡없는 노하우

글 | 이영미(편집위원, 다큐TV 기자)
ycm1022@hanmail.net

황무지에서 개척자로 우뚝 선 트레이너 이현우. 남들이 안 된다고 말할 때 그는 자신의 신념 하나로 1인 맞춤형 운동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해왔다. 그가 안아야 했던 좌절과 절망은 경험으로 남아 앞으로의 어떠한 시련에서도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는 양분이 되어주었다.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1인 맞춤형 운동을 더 연구하겠다는 운동사업가 이현우.

힘든 시기임에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한길을 가다 보니 어느새 이곳까지 왔다고 말하며 자신만의 성공담을 자신 있게 말하는 남자. PT샵 맥팩토리 대표 이현우 트레이너를 만났다.

건물주 부도로 좌절과 절망을 안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다가 다시 일어난 맥팩토리의 역사를 군산의 일부 알만한 시민은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만큼 군산에서 인지도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트레이너의 정상이라 불릴 만큼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헤쳐 나갈 수 있는 노하우들이 있다고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삶과 회원관리를 하는지 들어보았다.

저는 경북 포항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때 태권도를 시작해 중2까지 선수 생활을 했어요. 운동을 하면서 선, 후배 사이의 잦은 기합으로 어려움이 많았고 집에서도 오래 하지 않으면 공부해서 사회에 진출할 것을 권유했죠. 중학생 때 전학을 가서 운동을 포기하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의외로 적성에도 잘 맞았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포항제철 공업고등학교에 다니면서 포스코를 가기 위한 단계를 밟았어요.

고2 때 기능올림픽 대회에 나가기 위해 준비 중이었는데 IMF를 겪게 되었죠. 가정도 기업도 모두 함께 어려워지면서 좌절하다가 전문대에 들어갔지만, 마음이 가지 않아 다니다가 결국 1학기도 못 마치고 중퇴를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잡히질 않자 차라리 군대부터 다녀오는 게 낫겠다 싶어 경남 사천의 공군 부대에 입대했습니다. 그 후 사회에 나와 다시 운동하게 되고 지금의 PT 전문트레이너가 되었습니다.

“트레이너가 되기까지 인생 스승님의 도움이 컸어요”

2002년 제대를 하고 평생 스승님인 박인성 씨를 만났어요. 대구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시설이 낙후되어있어서 서울에 있는 운동센터로 데려가며 저에게 피트니스에 눈을 뜨게 해주셨죠. 2년간 스승님께 운동을 배우고 울산으로 가서 월급관장이 되었습니다. 여러 자격증을 땀고 그와 관련한 봉사를 하면서 이론과 실기 테스트를 받으며 준비를 했습니다. 2009년 11월에 스승님과 함께 군산으로 왔어요. 스승님은 군산에서도 헬스클럽을 크게 운영하고 계셨고 그곳에서 6개월간 일을 하다가 여성 전용 헬스클럽을 운영해 보라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습니니다.

“이제 자리를 잡아간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죠. 여성 전용 헬스클럽은 평균 600여 명에서 많으면 800여 명까지 몰렸어요. 열정을 쏟아부으며 3년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뭔가 이뤄지는구나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의 부도로 건물은 압류를 당했고 저는 꿈쩍없이 쫓겨났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회원들은 모두 환불해주고 직원들 월급도 다 챙겨주고 저는 두 달 정도 매일같이 술만 마시며 생활했습니다. 어느 순간 거울 속의 노숙자 같은 제 모습을 발견하고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시 할 수 있는 게 뭐까?' 제가 잘 하는 건 역시 운동하고 재활밖에 없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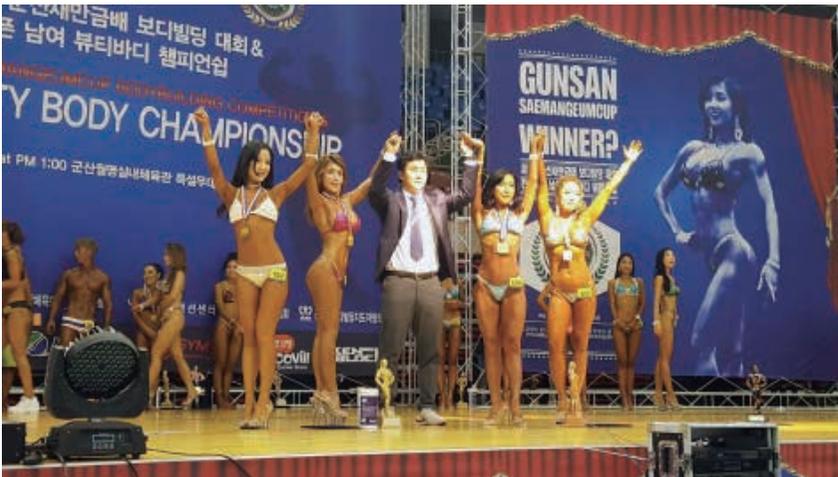




좌절과 절망에 빠져 지내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서울, 대구, 부산으로 다니면서 퍼스널 트레이닝 센터를 찾아다녔어요. 그렇게 다시 일어서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2013년 12월 23일에 맥팩토리를 열었어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동료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군산에서 무슨 PT샵을 하냐고', '그런데 군산이 안 될 이유가 뭐냐', '분명 운동에 관심이 있고 내가 가르쳤던 분들을 보면 열정 가득한 분들도 많은데 왜 저평가되는가', '그냥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냥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 다들까 어느 순간부터 회원이 오기 시작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배들이나 주변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돼?", "회원 많아?" 하루에 10명 이상 수업하는 걸 보면서 후배들도 점점 희망을 느끼게 되고 저에게 물어봐요. 어떤 컨셉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등등. 그렇게 제가 정보도 주고 팀도 주면서 군산에 하나하나 개인 샵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하나하나 없어지기도 했어요.

지금의 맥팩토리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PT는 집약적이에요. 기본적인 운동과 재활 등 모든 것을 1인 기업화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가 마케팅도 해야 하고 홍보, 운동피칭, 업장관리도 해야 하다 보니 힘들어요. 일반 퍼블릭 센터에서 일할 때는 쉽지만 좀 더 벌려고 직접 차리다 보니 세금적인 문제, 경영적인 문제, 부수적인 것들로 인해서 지쳐요. 그런 점에서 많이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해요. 왜냐면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해서 요가를 하면서 PT를 받는 분, 필라테스를 하면서 받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직업군이 있고 취미활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는 트레이너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완전 프로는 아니지만,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거니까 필라테스나 수영, 골프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골프선수를 레슨하는데 그분들이 이곳에 왜 올까요? 우리나라는 골프 스윙을 위해 레슨 하는 곳은 많아요. 그런데 골프를 위한 근육을 풀어주는 곳은 없어요. 서울에도 이런 곳을 찾기가 어려워요. 몇몇 있긴 하지만 너무 비싸죠. 그리고 1부 리그 정도 뛰어드는 선수나 되어야 받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운동도 시켜주고 근육을 풀어주면서 재활을 해주니까 골프 시험 자체가 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맞춤형식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PT를 하는 선생님들은 그런 다방면을 갖춰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 라이선스를 취득하면서 공부를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르신 중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분이 계셨어요. 보행장애라고 해서 얘기처럼 아장아장 걸으시고 눈에 초점이 안 맞아서 힘든 상태였어요. 6개월 정도 꾸준히 매일 저와 운동을 하시더니 러닝머신에서 뛰는 정도까지 하셨어요. 가장 뿌듯하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파킨슨병에 걸리신 할머니 한 분은 왼쪽 다리가 많이 떨렸는데 강화 운동을 하면서 다른 근육이 잡아주므로 흔들리기는 해도 전혀 넘어서는 일이 찾아지고 근육이 좋아지자 허리도 좋아지게 되었어요. 아프다는 이유로 그 아픈 부위를 운동하지 않게 되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점들을 배제하고 주변 협력근들이나 주변 근들을 운동하게 됨으로써 캐어가 되는 거죠. 인체는 분명 생명력이 있어서 의지와 방향만 있다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치시거나 수술 후 환자들이 100% 좋아질 수 없지만, 그 약한 부위들을 좋아지게 주변 근육을 이용해 운동하면 되는 거죠.

“재활치료는 아프면 무조건 낮게 해주는 병원 개념이 아니라 예방차원이예요”

허리가 아파서 운동을 못 할 때 병원에 가면 주사, 약 등으로 먼저 치료해 보고 안 되면 수술을 하겠죠. 그리고 병원에서는 반드시 얘기해줍니다. 운동하셔야 한다고...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운동 처방을 내려주나요? 운동은 또 다른 분야잖아요. 이 부분에서 항상 걸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허리가 아파는데 어떤 운동을 할까요, 라고 한다면 누구나 하는 운동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말에 깊이 대답을 못 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증상별 부위별에 따른 맞춤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1차 운동 후 효과가 나타나면 2차 발전 단계의 운동을 해야 합니다. 기초훈련도 필요하지만, 맞춤형 운동을 뽑아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저희의 역할인듯합니다.





“요즘 다이어트를 위해, 프로필 사진을 위해 도전하는 회원님들이 많으세요. 정작 건강이 우선인데 당장 앞만 보고 무리하는 모습에서 건강을 해칠까 염려가 됩니다”

‘요즘 유튜브 등을 영상을 보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헬스의 어원은 ‘건강’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헬스는 다이어트, 그리고 보여 주기식의 운동 등이죠. 건강한 운동이 되기보다는 독이 되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히 땀나고 힘들면 운동이 됐다고 생각하고 만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육은 실 때 성장하는데 그 타이밍을 잘못 잡게 되면 근육이 성장하지 못해요. 식단 같은 경우도 선수들이 하는 식단을 따라 하는 경우도 많아서 주로 저염, 저칼로리에 풀을 많이 먹죠, 그런데 그냥 잘 드시면 되는 거예요.

운동하시면서 소식만 하시면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급합니다. 하다 보면 좀 더 강한 것, 좀 더 쉰 것, 그러다 보니 몸이 어떻게요? 한번 사진 찍기에는 좋게 만들어지겠지만, 그 이후의 건강은? 그걸 케어해야 하는데 몸은 더 하기 싫은거죠. 너무 극한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봤기 때문에 그 후로는 건강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평소 드시던 대로 잘 드시면서 염분 줄이고 당분이나 탄산 빼고 생선이나 단백질, 그리고 제철음식 많이 드시면서 즐겁게 운동하시면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실 수 있습니다. 다 이어터들은 대체로 강박입니다. 빨리 해야 한다는 강박이 좀 더 쉰 것을 찾게 되고 약도 찾아 먹게 되고 하는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뭐든 하더라도 운동이 베이스가 되어서 내 몸을 케어 할 수 있어야 요요가 없습니다. 꾸준히 한 달에 1kg 뺀다 생각하면 1년이면 12kg인데 굳이 한

달에 12kg을 뺄 필요가 있을까요? 요요 없는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쁘고 날씬하면 좋겠지만 건강이 우선입니다. 개인 개인에게 맞는 운동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케어 해드리는게 저희의 일인 거죠.

“영상은 그냥 평균적인 것만 올려놔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가면 안됩니다. 참고는 하되 내 것은 아닌 거죠”

유튜브 보면서 운동할 때 자세가 맞는지 누가 케어 해주나요?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등등. 이왕이면 좀 더 전문 트레이너에게 먼저 배우고 나서 같이 해야 상승효과가 있지 처음부터 영상만 보면서 따라 하게 되면 절대 올바른 자세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골반이 빠지고 있는 것인지,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목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스스로 체크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 트레이너들에게 비싼 비용 지불하며 운동을 배우는 거예요. 비용투자를 할 때 그 선생님이 자격이 있나 잘 보시고 그다음은 내 몸을 케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지 충분한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PT나 트레이너를 선택할 때 일반적으로 그냥 대충대충 선택하시는데 그 선생님이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종류의 라이선스가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맞춤형 케어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변수가 많잖아요. 운동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해요? 그냥 병원에 가면 될까요? 물론 라이선스를 갖추고 실력이 있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자기에 맞는 트레이너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력하는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 취득한 라이선스

- 2005 재활 헬스 지도자
- 2008 생활스포츠 지도사, 생활 체육 지도자
- 2009 퍼스널 트레이너 자격증
- 2011 운동 처방사, 비만 관리자
- 2013 레크레이션 1급, 웃음치료사 1급
- 2014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자격증
- 2016 구급 심폐 소생법 외 다수 취득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변수에 대한 플랜을 갖춰야 해요”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되다 보니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수가 운동할 수 있는 클럽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멤버십 회원제를 고집하는 이유는 생각해보세요, 지금 같은 때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을 찾을

까요? 환경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줄 서는 맛집이 되어야 합니다. 크기가 중요하고 기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기다려주는 집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음식에 관한 연구도 해야 하고 서비스도 개선해야 하겠죠. 요즘 들어 더욱 샵을 찾아주시는 회원님들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합니다. 책임감을 갖고 좋은 시설, 깨끗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내 가족이 가든 회원이 가든 불편하지 않은 샵이 될 수 있도록 업장 관리에 더 신경 쓰고 공부하는 트레이너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면역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방역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환경이나 시간적인 게 여유치 않다면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계단 오르내리기도 좋습니다. 강화가 되면 스쿼트도 해보고 허리힘이 길러지면 플랭크도 하고 푸쉬업도 하는거죠. 그런 다음 부분별로 어떤 운동을 할까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알콩달콩 통기타 동아리

알콩달콩 통기타 동아리는 중장년 이상의 장년층들이 삶의 현장에서 얻게 되는 각종 고민과 스트레스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가장 접근하기 쉬운 통기타를 통해 회원 상호 간 인간애 등을 나누고 회원들이 습득한 실력을 소외된 이웃과 장애인 시설, 경로당 등을 찾아 위문공연을 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옛 추억을 되살리고 건전한 여가 활동을 갖고자 지난 2014년 결성됐다.

동아리 구성인원도 다양하다. 총 15명으로 기업인, 경찰 공무원, 사회봉사단체장, 가정주부, 요양보호사, 자영업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구성원들로 지역 사회에 재능기부로 봉사를 하고 있다.

통기타 동아리 리더인 고명수 씨는 군산시청에서 37년 동안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정년퇴직 후 선물처럼 찾아온 제2의 삶을 더 즐겁고 열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마음으로 조그마한 재능이지만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실력을 연마하면 좋겠다는 결심 아래 동아리를 결성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자 오늘도 열심히 배우며 가르치고 있다.

알콩달콩 통기타 동아리

추억의 선율에 잠기다
통기타로 전하는 중장년층의 해피투게더!

글 | 이복(맥군 회장/대기자)
bok9353@hanmail.net

70~80년대 이른바 잘 나가는 선배들의 손에는 어김없이 통기타가 들려 있었다. 통기타를 칠 줄 알아야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멋과 낭만을 아는 사람으로 통했다. 그래서 그 시절 젊은이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손끝이 터져 나가도록 기타 줄과 혈투를 벌인 경험이 있었다. '알콩달콩 통기타 동아리'의 리더인 고명수 씨도 바로 그런 젊은이었다.

고명수 씨는 몇 해 전 공직 생활을 접고 오래전 접었던 통기타를 다시 집어 들었다. 자신의 실력을 내버려 두기보다는 자신의 재능을 통기타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기로 한 것이다.

지인의 소개로 사설학원 등지에서 기타강습에 나서며 회원들을 중심으로 동아리를 만들게 됐다. 취미로 배우기 시작한 통기타 회원들이 늘어나며 현재는 15명의 회원이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다.

취미활동이던 동아리 활동이 이제는 소외계층 위문 봉사활동은 물론 시민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알콩달콩 통기타 동아리는 회원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기타 선율로 인하여 오손도손 함께 해나가자는 뜻이 담겨 있다.

여러 사람이,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고 만나다 보면 서로의 생각이 상충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통기타 회원들만큼은 견해차나 실력 차이,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불협화음을 극복하고 있다.

나운동 26빌딩에 자리한 알콩달콩 통기타 동아리 고명수 리더의 열정적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딱 3가지이다. 통기타와 배우고자 하는 의욕, 그리고 끈기다.

중장년층 누구나 환영

요즘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연습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와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연습활동에 임하고 있다.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 애초 계획했던 봉사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알콩달콩 통기타 동아리는 이제 시작이지만 적어도 월 1회 정도는 장애인 단체나 경로당, 영세 임대아파트 같은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 무료봉사 위문공연을 통해서 그분들의 힘겨운 삶을 잠시나마 위로해드리고자 한다.

고명수 리더는 "현재 지속해서 회원을 모집 중인데 통기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중장년층은 누구나 환영하며, 매일매일 연습을 하고 있어서 시간 제약을 받기도 하지만 시간을 할애해서 연습에 동참해주는 회원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라고 말한다.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여 개인 취미 생활로 통기타와 접하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 악기 하나는 어느 정도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진리를 염두에 주셔서 지금 바로 기회입니다. 투자하십시오."

알콩달콩 통기타 동아리
군산지 대학로 342, 26빌딩 806호
리더 고명수
010-3659-9868





국악영재 발굴 교육 센터 '전통한국음악예술원'

김금희 원장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지난 2013년도 중앙초등학교 앞에 '소담 김금희 한국음악예술원'을 열어 후학을 지도하기 시작했던 명창 김금희 원장, 2015년 지곡동으로 이전하였다가 올해 경암동 경포교 옆 건물에 '전통 한국음악예술원'(이하 예술원)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이 예술원은 김 대표의 평소 소망이었던 영재 발굴·육성에 역점을 둔 교육센터로서 2021년 '신협 사회공헌재단'의 전통예술 영재발굴프로그램에 공모, 선정된데 따른 것으로 전북에서는 신협이 후원하는 유일한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우리 전통 소리 공부에 꿈을 키워가는 어린 학생들은 물론 취미로 배우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 2021년도 1년간 무료 공부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통, 춤추고 노래하고 두드려라'

예술원은 전통음악체험(판소리·민요·한국무용), 전통음악 영재 발굴·양성, 문화재 전수자 집중 교육, 공연&문화교류를 중점으로 노년층의 예술교육을 통한 문화 복지 실현을 지향한다. 따라서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지원활동을 통해 전통문화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통 및 창작음악의 연구와 저변확대로 지역 예술인의 역량 강화와 문화공연의 질적 향상을 기한다는데 뜻을 같이 한 군산 출신 강사진들의 재능기부 동참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술원 프로그램

* 전통음악체험

- 판소리, 민요, 설장고, 사물놀이, 한국무용 배우기
- 전통, 창작 국악공연 관람
- 무형문화재 견학

* 국악 영재 발굴

- 영재 특강교육
- 명인·명창 집중특강교육(연4회)

* 문화재 전수자 집중교육

- 판소리 전수자 집중교육
- 전통타악 전수자 집중교육
- 한국무용 전수자 집중교육

* 공연&문화교류

- 연1회 전통한국음악예술원 정기공연 개최
- 해외문화교류를 통한 전통예술 알리기

김금희 원장이 걸어온 길

군산 창성동에서 살던 초등 4학년 무렵, 외할머니 손에 이끌려 처음으로 동네 국악원에 갔던 어린 소녀 김금희, 당시 국악원에는 성운선 명창을 비롯하여 후일 국립창극단 단원이 된 중학생 김학용 선생 등이 후학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춤과 가락, 풍류를 즐겼던 외할머니는 예쁜 외손녀에게 한국무용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 국악원에 데리고 갔다.

그러나 김금희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본 성운선 선생으로부터 한국무용뿐만 아니라 판소리의 기초도 배우게 되는데 특히 춘향가 중 사랑가는 얼마나 신기하고 재미있던지 어린 마음에도 꼭 자신이 춘향이 된 듯한 착각에 빠졌던 기억이 아직도 아련하다.



신은주 사무국장(좌)과 김금희 원장(우)



국악 꿈나무로 성장

예뻐장한 소녀가 참새 같은 작은 입을 크게 벌리며 가르침을 곧잘 따르고 실력도 일취월장하자 외할머니는 이러한 외손녀가 너무도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소질도 타고나서 국악원의 재간동으로 나날이 밝게 성장하며 이를 계기로 판소리에 매료된 그녀는 내 고장의 명창인 최란수 선생(전북 무형문화재 제2호)으로부터 흥보가, 심청가, 수궁가, 춘향가를 사사, 우리소리에 정진하게 되는데 초등생 시절 처음으로 남원 춘향제 국악부문 출전을 시작으로 이후 여러 대회에서의 실전 경험을 쌓게 된다.

군산여고 2학년이 되던 해 서울동아공쿨에 참가, 처음으로 동상을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고3때는 쟁쟁한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교육부장관상 수상의 영예와 함께 국내 최초로 수궁가를 완창, 주위의 주목과 기대를 모으게 된다. 이렇듯 초, 중, 고 시절 여느 아이들과 달리 굳이 우리전통문화를 배우려 하는 그녀를 기특하게 여긴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남모르게 자긍심도 높아져 가는데 이는 모두 외할머니에 이은 어머니의 지극정성과 후원이 밑거름이 되었으리라는 것은 짐작이 어렵지 않다.

대학 진학과 흥보가 첫 완창 발표회

고교 졸업 후 그녀는 8:1의 경쟁을 뚫고 서울예술대에 진학했다. 졸업 후 군산에서 가졌던 '흥보가' 완창 발표회는 뜻밖에도 그녀 인생의 전환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당시 공연을 지켜본 원광대 국악과 교수로부터 원광대에서 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추천을 받은 것이다. 원광대 졸업 후에도 그녀는 평소 존경하던 안숙선 명창을 사사하며 실력과 자질을 더욱

가다듬게 되거니와 대학에서의 학습과정들은 이론적 토대 구축과 함께 그녀를 더욱 진일보케 하는 인생의 단단한 디딤돌로 작용하게 된다.

대통령 상 수상 및 우즈베키스탄 국제음악축제 1등으로 세계를 압도한 판소리

그녀는 수많은 대회에서의 수상 경력도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29세 때인 2002년도 제10회 '서울전통공연예술경연대회'에서 종합대상인 대통령상 수상을 가장 큰 영예로 여기고 있다. 그런가하면 2007년도 우즈베키스탄에서 매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음악축제(International Music Festival)에 제자들과 함께 참가했는데 54개국 이 출전한 이 대회는 출전국 고유의 전통음악 경연장으로서 우리민족의 전통음악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참가국 출전자들은 저마다의 전통음악을 들고 나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악기에서부터 퍼포먼스까지 생김새만큼이나 다양각색이었고 개개의 특징적 요소를 담고 있었다. 이윽고 자신의 순서가 되자 당당히 무대에 오르는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그리고 남도민요 새타령을 불렀다. 때론 애절하게 때론 신명나게 높고 낮은 음역 대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그 소리는 11개국으로 이루어진 심사위원들의 심금을 울렸다.

소리꾼 혼자서 모든 등장인물을 묘사함으로써 1인 오페라로 불리는 이 낮은 판소리는 그들에게 분명 새롭고 경이로운 모습으로 비춰졌을 터이다. 그녀는 난생 처음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일약 1등의 영예를 안는 기쁨을 토했다.



사실 경험삼아 출전한 대회에서 최고상인 1등을 했다는 것이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다. 기쁘기도 했지만 눈물도 났다. 우리의 판소리가 세계를 압도하더니 그 감격과 자부심은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게다가 부상으로 7천 달러의 상금도 주어졌다. 그녀는 우즈베키스탄 문화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지 아동병원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싶어서였다. 이를 지켜본 대회 관계자들은 실력 못지않은 그녀의 고운 심성에 또 한 번 감동하며 칭송을 마다하지 않았다.

판소리는 '유네스코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민족의 독보적 자산

이후 그녀는 수많은 국내외 공연에서 수상 경력을 쌓으며 우리 한국 음악이 세계 그 어떤 음악 못지않은 고고함과 멋스러움을 증명해내면서 그 저변이 넓혀지고 있는 것을 무척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판소리가 이제는 우리만

의 것이 아닌 세계적으로 보존해야할 가치로 인정됨으로써 지난 2003년도 '유네스코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바 있거니와 이는 우리문화의 독창성이 온 세계에 입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남의 것을 아무리 잘해봐야 어디까지나 흉내에 불과한 것일 뿐 올곧은 주체성으로 내 것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주인으로서의 도리요 남으로부터도 인정받는다든 참 이치도 절감하게 된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당대 최고의 명창들을 사사하면서 스스로 스승 복을 타고난 사람이라 말하기도 한다. 특히 최란수 선생님의 지도를 받을 당시에는 스승의 대를 이을 유일한 제자임을 자임하면서 자신이 받은 이 복을 후학에게 쏟겠다는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지금도 불현듯 스승이 그리울 때면 엄격하셨지만 자애로우셨던 스승의 가르침이 떠올라 자신도 모르게 숙연해지기도 한다. 따라서 이제 시작한 영재발굴교육센터는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전통음악을 계승하고자한 평소의 열망이 응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술원 강사진

- 판소리·민요 - 김금희 대표
원광대학교 대학원 국악학 박사
제10회 서울전통공연예술경연대회 대통령상
우즈베키스탄 국제음악페스티벌 1등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5호 판소리 이수
원광대학교 음악과 국악전공 외래교수
호원대학교 문화예술대학 실용음악부 외래교수
(사)소담소리아트 대표
현 전통한국음악예술원 원장
- 무용 - 김명신
원광대학교 대학원 무용학 박사 수료
평화통일국악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5호, 47호 이수
(사)한국전통춤협회 익산시지부장
(사)한국무용협회 군산시지부장
- 타악 - 장태수
더굿아트센터 대표
터키 카라코즈 세계민속예술축제 그랑프리 수상
제21회 김제지평선농악경연대회 금상(문화부장관상)
- 판소리·민요 - 김부민
제23회 땅끝 해남 전국국악경연대회 명인부 최우수상
제12회 김제지평선 전국국악경연대회 판소리 일반부 종합대상(문체부장관상)
미산제 흥보가 완창발표회
- 타악 - 이용관
전통예술단체 다락방(多樂芳)대표
(사)동남풍 예술단원
세계사물놀이겨루기대회 대통령상
- 판소리·민요 - 김슬기랑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재학
제15회 전주시립국악단 '젊은소리'협연
제16회 군산새만금전국판소리·무용경연대회 일반부 최우수상
- 판소리·민요 - 주사랑
(사)소담소리아트 단원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
유달전국국악대전 일반부 최우수상
- 사무국장 - 신은주
소울국악실내악단 대표
백제가야금연주단 단원
전북민족예술총국 이사

잠재적 영재 발굴 산실

올해 출범한 예술원의 초등생 수강 등록은 이미 120명 정원을 채운 상태이나 계속하여 수강 문의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예상 외 호응을 얻고 있다. 사실 어린이들은 보석으로 치면 모두 자연 그대로의 원석이라 할 수 있어 이것이 잘 갈고 다듬어짐으로써 찬란한 보석으로 바뀌는 것으로, 향후 그들 중 누가 보석으로 거듭나게 될지는 아무도 예견할 수 없다. 김 원장이 심혈을 기울여 지도하는 것은 바로 이 원석을 보석으로 세공해내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비록 단 한명일지라도 각 분야별 영재를 발굴해 훌륭한 국악인으로 키워내는 일이다.

김금희 원장의 운영 철학

운영에 필요한 강의 진용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야심차게 출범한 예술원, 그렇다면 김금희 원장은 어떤 운영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지 않을 수 없다. 그에 대해 김 원장은 아래와 같이 솔직한 속내를 드러낸다.

“다행히 군산은 전북에서도 전주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국악의 수준이 높고 활동가도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영재 발굴에 기대치도 높은 편이지요. 수강자 입장에서 전액 무료 교습을 받을 수 있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분야별 최고의 강사진을 통해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통해 꿈을 키울 수 있습니다. 수강 어린이들은 각 약기를 두루 섭렵함으로써 자신의 잠재력과 특기를 찾을 수 있고요. 따라서 꾸준한 수련으로 기초를 다지는 가운데 전국적 영재 경연대회 참가 등으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출발 기회가 마련된 것으로서 영재 탄생은 단지 시간문제가 아닐까 기대가 큼니다.”

“끝으로 예술원 출범 처음부터 고락을 같이 해준 신은주 사무국장님, 그리고 저희 예술원을 기꺼이 선정해주신 신협을 비롯하여 특히 바쁜 가운데에도 재능기부 교육에 흔쾌히 동참해준 김명신 강사님을 위시한 모든 강사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시간표

- 민요 09:50~10:50
 - 한국무용 11:20~12:20
 - 판소리 13:30~14:30
 - 타악(설장고) 15:00~15:50
 - 타악(사물놀이) 16:00~16:50
- *초등 및 청소년(토·일요일)**
- 한국무용 10:00~11:00
 - 민요 11:00~11:40
 - 판소리 13:30~14:10
 - 타악(설장고) 15:00:15:40
 - 타악(사물놀이) 16:00~16:40
- *노년층 및 일반인(월요일)**
- 민요 09:50~10:50
 - 한국무용 11:20~12:20
 - 판소리 13:30~14:30
 - 타악(설장고) 15:00:15:50
 - 타악(사물놀이) 16:00:16:50



*단 수강생 총원 여부에 따라 일부 변경 운용될 수도 있음

전통한국음악예술원
군산시 번영로38
(경포교 옆 사랑방신문건물 2F)
T.063)446-0310/HP.010-3652-7679

군산의 숨은 '봉사 여왕'

김영림

“내가 행복해지니까 남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것”
희망을 나누는 일에 멈추지 않는다

글 | 이영미(편집위원, 다큐TV 기자)
ycm1022@hanmail.net

군산지역의 소외된 어르신들과 지역 청소년 센터의 아이들, 가족이 없는 재소자들을 챙기며 30년이 넘도록 사회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봉사활동을 해 온 군산의 숨은 '봉사 여왕' 김영림.

지난 2월 6일 토요일 오전부터 옥구에 위치한 떡 공장 냉동 창고 안에서 웃음소리가 분주하다. 들어가 보니 여사님 10여 분이 떡을 포장하고 계셨다. 떡 개수를 세는 팀, 포장하는 팀, 박스에 넣어 이동하는 팀으로 나누어서 반나절을 그렇게 작업했나 보다.

희망 티움과 시민포럼 단체가 명절에 식사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한 지원사업이었다.

역전 무료 급식소는 매년 일 년에 두 번 추석과 설 명절에는 급식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가 기승이기도 했고 설 연휴 내내 급식이 멈춘다는 소식에 단체가 나선 것이다. 다행히 단체가 거들어 연휴 전 급식 일에 빵과 떡국 떡 그리고 냉동 찹떡을 어르신 300여 명에게 전달했다. 추운 겨울 연휴를 나기에 충분한 양은 아니지만,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들이 있어 배고픔은 지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게 전달이 되기까지는 숨은 노력의 손길과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희망티움과 시민포럼에서 활동하며 자원봉사자로서 소명을 다해 살고 있는 김영림. 그녀의 체구에서 뿜어 나오는 열정을 만나기 위해 그녀가 운영하는 문구점으로 찾아가 보았다.



문구점을 운영하시면서 사회활동으로 많은 공헌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30년 전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무기력했던 때가 있었어요. 속절없이 시간만 흐르며 얼어붙은 나의 가슴은 멈춰진 시간 속에 갇혀버린 듯했어. 힘겨운 나날을 하염없이 보내고 있을 때 친구의 손에 이끌려 난생처음 재할원에 찾아가 봉사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힘들고 지칠 때 오히려 남을 돌아보게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내가 살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니까 남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절대 내가 가진 게 많고 부자라서 봉사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부대끼며 배우며 깨달음을 얻어요. 내가 살아 있음을 감사하게 만듭니다.





봉사하시면서 수많은 상을 수상하셨던데...

가장 힘들 때 시작한 봉사가 제 삶에 큰 위안이 되어 주었어요.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시작했는데 의도치 않게 큰 상들을 받게 되니 더욱 열심히 활동하게 되었고 그럴수록 저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수상내역

자원봉사 국무 총리상, 초아대상, 법무부 장관상 수상, 도지사상 수상, 살기 좋은세상 선행상, 교육감상, 군산시민 모범상등 다수 수상

“나는 아픈 곳도 없었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허무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싶은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힘든 거라고 하면 봉사가 힘들었던 게 절대 아니에요. 주위의 굽지 않은 시선들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어요. 문구점은 내 박쳐놓고 밖으로만 다닌다는 억지소리도 많았어요. 한때는 문구점에 아르바이트까지 두면서까지 밖에 나와 활동을 했으니 오해받을 만도 했나 봐요.

오래된 이야기인데 예수재활원에서 봉사를 했을 때예요. 정신없이 아이들을 목욕시키고 옷을 입히는데 뒤늦게 알았어요. 아이의 양팔이 없다는 것을... 저는 그 당시 몸을 움직이고는 있지만, 저에게 처한 상황들로 인해 정신이 온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기였거든요. 옷을 다 입혀주자 아이가 발가락을 열심히 흔드는데 알고 보니 엄지 대신 '최고'를 말하는 거래요. 나는 단지 목욕만 시켜줬을 뿐인데 아이가 표현하기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당신이 제일 예쁘다'라고 하는 거라더군요. 손이 없으니 발로 표현하는데 어찌나 감사하고 또 미안하던지... 나는 아픈 곳도 없었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허무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싶은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2017년에는 해외 자원봉사단을 꾸려 캄보디아에 갔었어요. 저는 봉사를 나갈 때면 봉사자들과 함께 먹고 싶어서 반찬과 장류들을 준비해 가고는 합니다. 캄보디아에 갔을 때도 현지에서 입맛 때문에 고생할 봉사자들 생각에 손수 담은 장아찌들을 가져갔는데 캄보디아의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한번 맛을 보시더니 남은 거라도 챙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넉넉지 않은 탓에 반찬들을 조금씩만 내어드렸는데 어찌나 해맑은 표정으로 기뻐하시던지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요즘 들어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인지 부쩍 살기 어렵다, 힘들다, 등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 탓인지 외롭다. 우울하다. 힘들다 등등의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 보는 건 어떨까요. 주위에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봉사와 나눔이 무너진 자신을 바로 세워주고 현실의 고단함을 잊게 해주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 줄 수 있을 거예요. 함께해요. 우리.

오직 나누는 마음 하나로 자신의 삶을 지탱했던 자원봉사자 김영림. 그녀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따뜻한 온기를 선물했는지 무게로 가늠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가며 희망을 나누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건강하 기만을 바랄 뿐이다.





파이안 타로		
금정은	사업운	적임운
해정은	키움운	궁합운
전정은	무결운	이사운
매해운	지너운	취업운
가족문제, 친구문제, 인간관계		
개인고민상담 등		
		서플링(한가지 주제) 1만원
		2인커플 상담 2만원
		궁합운 2만원
		30분(무제한질문) 3만원
		1시간(무제한질문) 5만원
		신남운세 2만원
		손금(카톡상담 20%) 3만원
		학생(고등학생까지) 5천원

취업박람회, 학교행사, 기업행사, 오픈행사 미리 예약주세요~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오은희 대표가 달촌책방을 오픈한 것은 지난해 9월. 산후 우울증을 그림책으로 극복하며 치유의 힘이 담긴 그림책과 타로의 상관관계를 깨닫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창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젖어 있던 차 마침 공설시장 임대료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구도심상권리네 상사사업단에서 구도심 활성화 취지로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서 2년간 임대료 지원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달촌책방이 1호점으로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타로는 각각의 문양이 들어간 78장의 카드를 뒤집어 놓고 무작위로 7장의 카드를 선택케 한 뒤 그 카드 뒷면에 그려진 그림으로 그 사람의 성향, 심리를 판단하고 이를 통해 길흉의 운세를 점치는 것으로서 재미삼아 보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적용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사실 타로카드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집트 기원설, 중국 기원설, 인도 기원설, 수피 기원설과 카발라 기원설 등이 전해지기도 하나 명확히 밝혀진 게 없다. 타로에 관한 기록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기는 14세기부터로서 프랑스에서는 타로(tarot), 이탈리아에서는 타로치(tarocchi)라 불렀다. 오늘날 카드의 명칭이 타로로 굳어진 것에서 알 수 있듯 타로의 주도권은 이후 프랑스로 넘어가게 되는데 놀이용으로 만들어졌던 이 카드를 점술용으로 체계화시킨 것은 프랑스의 신비주의자들로서 19세기 경 그 중심이 영국으로 옮겨진 이후 세계적으로 대중화되었다는 설이 유력하게 전해질 뿐이다.



그림책 & 타로(tarot)상담 구시장길 ‘달촌책방’ 오은희 대표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신영동 구시장길 도로변, 지나다보니 ‘달촌책방’이라는 예쁜 글씨의 간판이 눈에 띈다. 출입문 유리엔 그림책 서점이라 써어 있다. 내부 아담한 공간에 갖가지 그림책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고 타로 안내문도 설치되어 있다. 이곳의 운영자인 오은희 씨는 타로 열풍이 불기 시작한 그녀 나이 20대 중반이던 15년 전쯤 타로를 처음 접하고 묘한 매력에 빠져 본격적으로 공부한 케이스다.

오 대표에 따르면 타로는 일종의 심리상담 도구로 각 나라마다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변천됨으로써 그 종류만 해도 수 천 가지에 이를 것이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 고통스런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터놓고 얘기할 친구가 없다,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아이들이 크면서 존재감을 잃고 있다, 삶의 의미를 잃었다 등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간혹 우울증은 아니더라도 생각 자체가 비상식적으로 아주 독특한 사람도 있게 마련이다.

최 대표는 이런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준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의 문제를 안고 있기 마련이고 다만 본인이 해답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를 뿐이라는 게 오 대표의 말이다. 따라서 타로를 통해 무슨 말이든 터놓고 할 수 있는 친구이자 카운셀러로서 그 해답을 찾아주고 긍정성과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게 본인의 역할이라고 들려준다. 그래서일까, 스트레스를 안고 들어온 고객이 한껏 밝아진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때 흐뭇하고 보람을 느낀다.

언젠가 아파트 모임에서 시골로 가족동반 캠핑을 갔던 때, 그날 따라 유달리 밤하늘에 떠있는 달이 예뻐다. 그 달빛아래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아파트 주민들은 평소 이웃사촌으로 지내는 사이이기도 하다. 책방 이름을 달촌이라 한 것도 그런 연유에서인데 다들 예쁘게 지었다고 말한다. 일상에서 오는 극도의 스트레스, 번민과 우울 감으로 삶에 좌절을 느끼고 있다면 달촌책방의 타로카드가 뜻밖의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줄지도 모를 일이다. 들어올 때는 무겁고 답답했지만 나갈 때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이 될 수도 있다.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묻어둔다.

달촌책방
 군산시 구시장로 64-2
 T.010-2992-4019
 영업시간: 11:00~17:00시(화, 수, 목, 금)
 *주말·평일 저녁 예약 가능





백사장은 고향인 부안 격포에서 일찍부터 바다와 수산물을 접하며 7, 8년 정도 횡집을 직접 운영했다. 이때부터 수산물에 대한 전문적인 공부와 함께 사업을 병행하는 악바리 근성이 나왔다. 지금도 장화를 신고 직접 활어차를 몰고 재료들을 사러 다닌다.

베테랑의 노하우, 신선한 재료와 저렴한 가격 동시 만족

백사장은 “현재 주로 충남 보령에서 조개들을 가져오는데, 처음엔 여자 혼자라서 무시와 텃세가 엄청났죠. 그래도 무조건 부딪히고 뒤로 빠지지 않았다. 저 나름의 근성과 담력으로 이겨냈죠.”라며 “오랫동안 거래를 해서 서로 신용이 쌓이고 정도 생겨, 지금은 확실하고 든든한 사업 파트너가 되었다.”고 흐뭇해했다.

재료 구입에도 숨은 노하우가 있다. 조개 크기와 계절에 따라서 종류가 다르다. 같은 조개라도 짬뽕과 국물용이 다르다. 가격과 맛도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하다. 때론 그날 날씨를 잘 파악해서 미리 조개를 주문해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해녀대합실이 신선한 재료를 저렴하게 손님에게 제공하는 비결과 방법이다.

백사장은 이러한 성실함과 전문성을 갖기 위한 노력들이 기초가 되어 지금의 사업 노하우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백사장은 한식, 양식, 일식 조리사는 물론 어렵다는 복어 전문 조리사다. 오래전에 조리사 면허를 취득하고 복어전문점을 준비했다. 일본의 복어 유명 맛집을 수십 번씩 가서 먹고 배우기도 했다.

어패류 전문 해녀대합실

백효숙 사장

1999년 시작, 몸에 좋은 조개 전문점

‘산더미 조개찜’ 인기 최고,
곧 ‘조개육수 죽’ 선보일 예정

글 | 최승호(편집위원)
gsport11@naver.com

고향 부안에서 횡집 시작

“코로나19 이전엔 외국인들이 많이 왔어요. 특히 일본인들이 꾸준히 찾아왔지요. 현재 군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단골도 꽤 많습니다.”

지난달 25일 방문한 어패류 전문점 ‘해녀대합실’ 백효숙 사장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건넨 말이다.

나운동에 소재한 ‘해녀대합실’ 가게는 백 사장의 꿈과 열정이 백퍼센트 고스란히 배어있는 진짜 삶의 현장이다. 내부 분위기도 서민적이고 소박하다.

이곳은 다른 가게와는 달리 수족관이 안에 있다. 조개 종류에 따라 수족관과 수온도 다르게 관리한다. 냉동기술과 수족관 시스템도 발전해 편리한 점도 있지만, 조개를 다뤄온 오랜 공부와 경험에서 얻은 지식과 방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백사장은 “겉모습에 치우치지 않고 손님들에게 신선한 음식을 맛있고 푸짐히 제공하고,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하는 것이 가장 흐뭇하고 중요하다. 기분 좋은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고객 시장이 좁고 선호도가 높지 않아 과감히(?) 포기하고 선택한 아이템이 조개를 중심으로 한 어패류 전문 해녀대합실이다.

“지금 가게 바로 옆에서 시작한 해가 1999년이다. 당시 연예인야구단과 인연이 있어 배우나 가수 등 유명 스타들이 단골로 자주 찾아왔다.”며 “그때는 일반 생선회와 조개를 같이 했었는데 지금은 어패류(조개) 위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몸에 좋은 조개 사랑, '산더미조개찜' 최고 인기

조개찜, 연포탕이 유명하데 특히 조개찜은 '산더미조개찜'이라 불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김장김치와 조개를 함께 먹는 서해안 전통방식도 이곳에서 맛볼 수 있다. 조개는 서해안 조개가 대한민국 최고라고 한다. 잊혀지는 전통요리를 처음 알았다.

백사장은 “조개는 갯년기에 좋으며 호르몬, 간에도 아주 좋은 효능이 있다. 어르신들이 고기 섭취보다는 조개를 많이 드셔야 한다. 많이 드셔도 탈이 나지 않고 자체적으로 나오는 국물이 천연조미료 역할을 한다. 간이 맞아 조미료를 쓸 필요가 없다.”며 조개 사랑을 이어갔다.

지금도 손님의 90% 정도가 관광객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엔 줄을 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한다. “먼저 오신 분들을 위해 자리 예약을 안 받아요. 직접 찾아오신 마음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사장은 “5, 10년 만에 다시 찾아오세요. 생선이 될 때 잡아주고, 자리를 안 뺏기려고 흔들리는 탁자를 잡고 먹기도 했다. 현대나 대우 직원들 타지로 떠날 때 마지막 회식을 하면서 같이 했던 분들”이라며 “정말 반갑고, 감사하지요. 그분들 잊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같다. 군산과 조개찜을 널리 알리는 한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백사장은 항구도시인 군산을 사랑한다. 그리고 바다와 수산물 요리를 좋아한다. 그래서 군산을 알리는 수산물 요리와 홍보가 부족한 것이 늘 아쉽다. 찜찜이 아이디어와 아이템도 정리하며 두 번째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조개육수를 활용한 건강식 죽요리를 본격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끝으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데, 진짜 조개 맛은 여름이 최고입니다. 조개 성장과 수확시기에 맞춰 그런 비밀이 있어요. 더워지는 날 에어컨 아래에서 시원한 맥주 한 잔 정말 강추합니다. 하하”

늘 밝은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아주는 백효숙 사장과 해녀대합실을 응원한다. 오후 5시 30분에 오픈, 11시 30분에 마감하고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다.

해녀대합실
부곡길 74(나운3동 847-9)
대표 백효숙
전화: 471-3096 / 010-8668-3096





86세 '수필과 비평' 등단

파이팅 청년년~
강이레 여사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나이는 숫자라는 말이 있다. 인생은 60부터라 하기도 하고 청년년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세태가 변하고 있다. 무엇을 잘 하거나 못하는 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열정의 문제라는 말이기도 할 터다. 따라서 나이에 지레 포기하고 못한다기보다는 꿈이 없고 열정이 없는데서 오는 무기력함과 자존감의 결여가 원인이랄 수 있으며 그런 경우 못할 수밖에 없다는 핑계만 찾는다. 굳이 잘하지 않아도 되고 성공을 거두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매사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 무엇이든 배우려고 하는 자세, 도전해보는 자세다.

그러다보면 인간관계의 폭도 넓어지고 감성도 풍부해져 자연스럽게 젊음을 유지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런 면에서 언제부터가 청년년이라는 용어가 일상어로 쓰이고 있다. 몸은 노년이지만 생각이나 행동이 청년 같다는 뜻이다. 최근 86세의 나이에 '수필과 비평'에 등단한 강이레 여사가 바로 그에 해당하는 사례가 아닌가 한다.

강이레 여사는 김제가 고향으로서 늦은 나이에 김제여고를 졸업한 뒤 23세 무렵 당시 전북대학교 법정대 졸업 후 고시 공부 중이던 지금의 남편 김종기 씨를 만나 결혼했다. 여고 시절엔 당시 소설가로 등단했던 국어 선생님께서 시(詩)와 관련된 가르침을 많이 받았다. 시를 외우는 게 일상이었고 시작(詩作)을 해보느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문학에 대한 감성이 싹트고 가꾸어졌다.

결혼 후 아이가 태어나면서 남편의 고시 도전은 끝이 났다. 생활고는 현실 문제인데 고시 합격은 기약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남편은 공무원으로 방향을 전환, 정년퇴직 때까지 공직에 몸담게 된다. 부부는 슬하에 딸 둘, 아들 둘, 네 자녀를 두었다. 그들 모두 S대 K대 등 명문대 출신으로 교수, 의료인, 기업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구적이면서 가정적인 부모의 DNA를 이어받은 것일 게다.



강이레 여사와 부군 김종기 선생



남다른 글솜, 청년년의 삶

올해 89세가 된 부군 김중기 선생은 일찍이 8순을 넘기면서 부동산공인중개사 목표를 세우고 서해대 도서관을 찾아 공부를 시작, 3년 전 당당히 합격의 함으로써 노익장을 과시한다. 당시 같은 도서관에서 중개사 공부를 하던 젊은이들은 '그 연세에 무슨 공부이며 합격이 가능할까'라는 미심쩍은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그럴수록 의욕을 불태우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다. 하지만 중개사 개업을 하지 않았다. 그저 공부 자체가 즐거웠고 뜻을 이루었다는 성취감이면 족했다.

이들 부부는 거의 함께 하루를 보낼 정도로 글솜이 남다르다. 복지관 탁구장에서 탁구를 즐기고 틈틈이 책도 읽으며 산책도 같이 한다. 문화동 대로변, 93년도에 신축한 자가 건물 3층이 보급자이다. 1.2층은 세를 졌다. 승강기가 없는 건물이다 보니 언제나 걸어서 3층을 오르내린다. 옥상엔 텃밭을 만들어 배추, 상추, 파, 쪽갓 등을 재배, 자급자족한다. 인스턴트 식품은 피한다.

새로운 사조와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 컴퓨터 검색도 즐기고, 늙은이로 취급받는 게 싫어 20년 정도 나이차면 격식을 따진 존칭대신 그냥 형님이라 부른다 한다. 건강을 가꾸며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살려고 해선지 평생 보약을 먹어본 적도 없다. 김 선생의 경우 그 연세에 아직도 안경 없이 책을 읽는 게 놀라워 비결을 묻자 젊어서부터 결명자차를 즐겨 마신 것 외에는 특별한 비결이 없다고 들려준다. 광고롭게도 부부가 똑같이 86세에 꿈을 이룬 것에서도 천생배필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이를 떠나 멋지게 청년년의 삶을 구가하고 있는 이분들에게 축하와 함께 큰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복지관 수필창작반

노년에 들어 강 여사는 부군과 함께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많은 여가시간을 보낸다. 복지관은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서다. 이들 부부는 특히 탁구를 즐기기도 하는데 강 여사는 얼마 전부터 적성을 찾아 수필창작반에 들었다. 수강생은 20여명 정도 되었다. 강사(김재희 작가)의 지도를 받으며 복지관 내 '구불길문우회'에 들어 글쓰기에 정진했고 강사의 격려 속에 자신감이 붙으면서 시나브로 글 쓰는 재미에 빠져들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의욕과 즐거움을 주었다.

주제는 생각이 미치는 대로 그때그때 정했다. 재작년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게 되면서부터는 그만큼 글 쓰는 시간이 많아졌다. 컴퓨터는 서툴렀지만 차분하게 자판을 두드리며 머릿속의 것을 옮겼다. 어느덧 틈틈이 써 둔 수필이 30여 편에 달했다. 월간 '수필과 비평'을 3월호 신인상에 당선된 '털실로 만든 옷'은 그 중 하나이다. 이번의 당선으로 이제 강 여사는 '수필과 비평' 규정에 따라 어엿한 기성작가로 인정받는 수필가가 되었다.

강 여사는 '수필과 비평' 3월호에서 밝힌 당선소감에서 "세월이 속절없이 흘러가며 식구들 뒷바라지에 신문, 잡지, 책 한 번 구경 못한 채 나이만 잔뜩 먹은 늙은이가 되고 말았다. 평생을 집에만 박혀 있다가 우연히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수필 공부에 푹 빠져 나이를 망각한 채 살고 있다. 수십 년이 흘러 까마득한 기억의 저편에 희미하게 간직되었던 활자에 대한 갈망이 시작 된 것이다. 너무 늦게 시작한 글공부지만 나에겐 새로운 세상과 만남이다. 여생을 이리 뜻있게 보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 지도해주신 선생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심경을 피력했다.

-당선작 '털실로 만든 옷'에 대한 심사평- (유인실 작가)

인간의 몸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마음을 전할 때 몸에게 먼저 신호를 보내야 소통이 가능하다. 인간 생활을 하는 데 기본이 되는 의식주 가운데 옷은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 기능을 한다. (중략) 이 글에서 감지되는 정서는 엄마의 따사로운 손길이 가족들에게 훈훈하게 연결되어 느껴지는 따뜻한 인간적 유대감이다. 옷을 만드는 재료가 되었던 털실이 재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착안한 화자는 털실의 재생력이 몸을 스러져 가도 그 본질은 새로운 외피를 입고 대대로 전해지는 인간사와 닮아 있다는 것을 환기시킨다. 그것은 사라진 것에 대해 위로 받고, 재생하는 것에 대한 생의 궁정에 닿게 한다. 연속적으로 다음 대상으로 연결되고 둥글게 하나로 이어지는 세상을 <털실로 만든 옷>을 통해 잘 전하고 있다. 당선을 축하한다.



복지관에서 탁구를 즐기는 강이레 여사 부부

참치 관창은 맛집 ‘죽향참치’

지난 2016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군산 유일의 여성 셰프가 운영

글 | 이복(맥군 회장/대기자)
bok9353@hanmail.net



죽향참치, 분위기도 굿, 맛도 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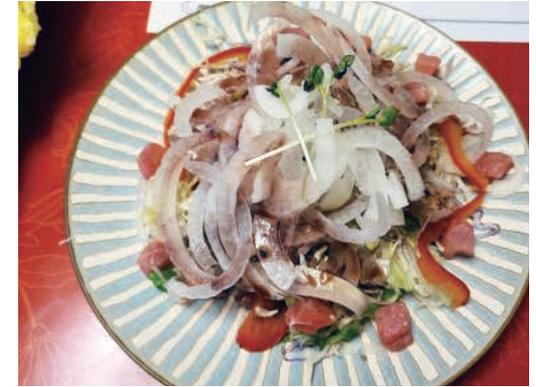
지곡동 지곡성당 맞은 편에 위치한 죽향참치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남다르다. 일반적인 일식집이나 참치 집과는 달리 여성 셰프가 반겨준다.

자리를 잡고 앉자 정갈하게 상차림이 준비된다. 참치 기본 요리를 주문하자 빈속을 달래줄 전복죽이 나온다. 부드러운 전복죽으로 속을 달래준다.

명이나물과 단무지, 생강 초절임, 그리고 양념 김이 놓이고, 야채 샐러드와 배추 오이 참치가 들어간 ‘참치 타다키’(참치를 해동 후 쇠꼬치를 부채꼴 모양으로 넓게 펴서 끼워 직화로 겉면을 익혀주고 얼음물에 바로 담가 물기를 제거한 요리)가 제일 먼저 나온다. 상큼한 맛이 미각을 돋군다.

본격적으로 참치요리들이 나온다. 눈으로만 감상해도 금세 침이 넘어갈 듯한 붉은 빛과 분홍빛의 참치요리들.

한참 참치요리를 먹다 보면 ‘메루구이’와 ‘참치 갈비’라고 하는 참치 머리 찜 요리가 나온다. 요리를 거의 다 먹어갈 즈음 바삭하고 뜨끈한 튀김 요리가 마지막으로 나온다.





군산 유일의 여성 셰프 '죽향참치'

죽향참치(대표 안명란)는 지난 2016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이다. 일식집에 가보면 셰프의 대부분이 남성들인데 반해 죽향참치의 셰프는 여성으로 죽향참치 사장님이기도 하다.

일식 음식점, 특히 참치요릿집에서 여성 셰프는 흔치 않고, 더욱이 군산에서는 여성 셰프가 흔치 않는데 안명란 사장이 직접 이 일을 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를 물어보았다.

안명란 사장은 오래전 일식집에 일하다가 이 일을 직접 배워보겠다는 생각에 참치에 관해 직접 공부를 시작하고 전문가를 찾아가 요리를 배웠다. 업계 특성상 직접 셰프의 길로 들어서는 게 창업에도 유리하다는 생각이었다.

직접 요리를 배워 기존 운영하던 참치 가게를 인수해 지난 2014년부터는 자신만의 가게를 창업한 것이다.

여성셰프가 요리를 하다 보니 손님들과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관계도 좋고, 여성의 섬세한 손길이 닿은 요리들을 맛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 입소문이 나기 시작, 군산의 대표적인 참치요리 맛집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반면 참치요리의 특성상 남성들의 힘이 필요한 때도 있는데 여성으로서 힘이 들 때도 있다. 열려있는 참치 머리를 작업할 때는 여성이다 보니 힘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 여성의 손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바껴 속상하기도 하지만 이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하며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잊지 않고 찾아주는 손님들 덕에 보람을 갖는다고 한다.

최상의 공간, 최고의 서비스 제공

죽향참치만의 장점이 있다면 참다랑어, 눈다랑어, 황새치 세종류의 참치를 다 맛볼 수 있으며, 모든 가격대 메뉴에 참치의 특수부위를 제공함으로써 참치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계획에 관해 묻자 안명란 사장은 “가게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몇 년 전 군산 경기가 어려워진 데 이어 지난해 터진 코로나 19 바이러스 영향으로 손님들의 발길이 예전 같지 않아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그나마 단골손님들께서 잊지 않고 꾸준히 찾아주고 있어 너무 감사하다며, 하루속히 코로나가 사라져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 손님들이 마음을 놓고 식당을 이용했으면 한다고 말한다.

또 가게 리모델링을 통해 환경을 새롭게 바꿔 손님들에게 최상의 장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군산의 참치 맛집으로 명실공히 자리매김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한다,

참치를 맛보기 위해서는 어느 참치 집이나 비슷하겠지만 죽향참치만의 매력인 싱싱하고 맛있는 참치의 맛을 느끼기란 쉽지 않다. 특히 여성 셰프의 섬세함과 손맛으로 손님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며 참치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죽향참치. 오늘 방문해 보시는 게 어떨지.



죽향참치
군산시 상지곡안2길 6 (지곡성당 맞은편)
063)468-1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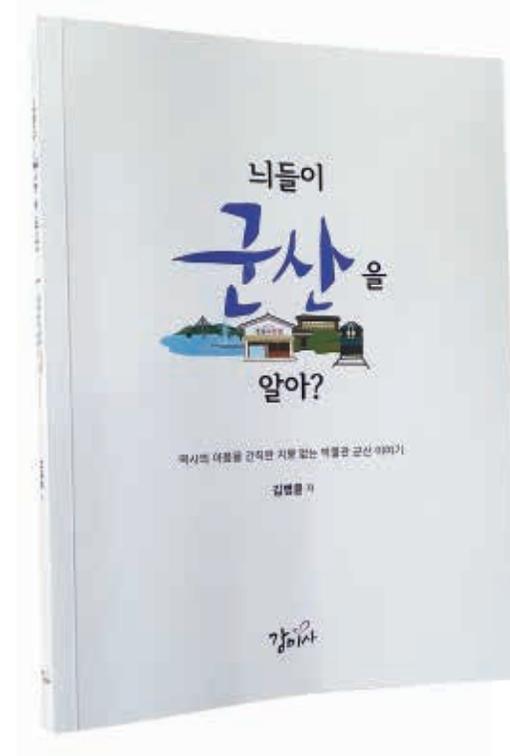




저자 김병윤 기자

이방인이 쓴 군산견문록 '니들이 군산을 알아?'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지난 3월 중순 발간된 '니들이 군산을 알아?'(225P 단행본/김미사 발행)책이 화제다.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지붕 없는 박물관 군산 이야기'라는 부제를 단 이 책의 저자인 김병윤 기자는 한국외대 러시아어과를 졸업하고 아나운서, 주간지·일간지를 거쳐 SBS스포츠 기자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프리랜서 기자로 방송과 신문에서 언론인의 삶을 지키고 있는 인물이다. 서울생인 그가 군산을 찾은 것은 30여 년 전 군산상고 야구 취재차 군산을 한 차례 다녀간 이후 처음으로서 언제부턴가 언론 매체에서 자주 군산이 소개되는 것을 보면서 군산에 관한 흥미가 급 유발됐서다.

저자는 지난해 30여 년 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군산을 찾아 지역의 면면을 발로 뛰며 취재를 진행했다. 따라서 이 책은 그의 시선으로 바라본 지금의 군산을 가감 없이 기록한 '군산견문록'이랄 수 있으며 관련 사진들과 함께 저자 특유의 단문체로 기술되어 있어 읽기에 편하다. 본문은 11개 이야기 속에 각각의 세부 문항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 이야기
'수탈의 역사를 간직한 아픔의 도시 군산'(동국사, 군산세관, 내항, 일본식(히로쓰)가옥, 일본인농장, 전군가도, 농민항쟁, 나가사키18은행 등),

-두 번째 이야기
'왕들도 사랑한 군산의 섬'(어청도, 무녀도, 신시도, 장자도, 선유도),

-세 번째 이야기
'근현대의 역사를 간직한 군산의 명소'(경암동철길, 은파호수공원, 짬뽕특화거리,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이영춘 가옥, 초원사진관, 아메리카타운, 임피역, 근대역사박물관 등)

-네 번째 이야기
'문화예술인이 찾는 창작의 도시 군산'





-다섯 번째 이야기

‘산해진미가 풍부한 군산의 음식’(수제보리맥주, 보리짬뽕라면, 생선탕, 냉면, 울외장아찌, 박대, 이성당, 짬뽕)

-여섯 번째 이야기

‘값싸고 맛있는 군산의 맛집’(홍집, 뽕뽕이갈비, 우리지뽕, 흥영장, 빈해원, 국제반점)

-일곱 번째 이야기

‘옛정이 살아있는 전통시장’(공설시장, 대야시장, 명산시장, 수산물종합센터)

-여덟 번째 이야기

‘볼굴의 투혼 군산의 스포츠’(군산상고 야구부, 채금석과 군산의 축구, 군산의 체육인들)

-아홉 번째 이야기

‘대한민국에 우뚝 선 군산의 인물’(쌍천 이영춘, 채금석, 채만식, 대중예술인)

-열 번째 이야기

‘낮아서 정감이 가는 군산의 산’(월명산, 오성산, 청암산, 대각산, 망해산)

-열한 번째 이야기

‘군산의 구불길들’

취재는 일정 부분 현지 주민의 조언에 힘입기도 했지만 이방인의 객관적 시선으로 들춰냈다는 점에서 군산 사람도 잘 모르는 군산 이야기랄 수도 있다. 짧은 일정에 순전히 발로 뛰며 군산의 숨은 면면을 살폈기에 책의 행간에서는 저자의 진솔한 의욕과 가쁜 호흡이 느껴지기도 한다.

책의 맺는말 -김병윤-

“1987년 12월 어느 날, 군산에 첫발을 내딛었다. 군산상고 야구부를 취재하기 위해서다. 도시는 조용하고 낯설었다. 군산에 관한 지식은 군산상고가 있다는 것뿐이었다. 바쁜 기자생활 속에 군산의 기억은 잊고 살았다. 30년이라는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군산이 일제 수탈의 아픔이 서린 도시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면서 머리가 하얘졌다. 군산을 취재하는 동안 군산의 저항정신과 강인함을 느꼈다. 군산의 넉넉한 인심과 천혜의 자연경관, 맛갈스런 음식도 알게 됐다. 군산사람들은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그 아픔을 웃음과 희망으로 승화시켰다. 한국근현대사의 아픔이 남아있는 군산을 알리고 싶었다.”

“군산은 내게 정말 고마운 도시다. 글을 쓰는 내내 행복감을 느끼게 해줬다. 이번의 ‘너들이 군산을 알아?’는 필자의 처녀작 ‘너들이 서울을 알아?’에 이은 두 번째 책이다. 1년 여 시간을 공들여가며 집필했다. 그러나 군산의 매력을 다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과 자책감이 든다.” (본문 요약)

감미사 발행
전국 서점 및 인터넷 판매
정가 18,000원

저자 김병윤

한국의국어대학교 러시아어과 졸업
아나운서, 주간기, 일간지를 거쳐
SBS 스포츠 기자로 활약했다.
현재는 프리랜서 기자로 방송과 신문에서
언론인의 삶을 지켜가고 있다.



내항 뜰다리 앞에서의 저자

영인바이오 쓰담쓰담 안심당면

글 | 매거진군산 편집부



영인바이오 최인정 대표

영인바이오의 반려동물 브랜드인 쓰담쓰담은 강아지를 위한 강아지전용라면인 '안심당면'은 4월 출시되며, 홈플러스에 입점 될 예정으로 지난 19일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에서 펀딩률 1542%로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 '안심당면'은 2021 케이펫페어 세탁에서 처음 시제품을 선보였으며, 3일 동안 진행된 행사에서 준비한 3000개의 라면을 모두 소진하고, SNS를 통해 긍정적인 후기가 계속 올라오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인기제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영인바이오의 쓰담쓰담 브랜드에서 선보이는 강아지전용 라면인 '안심당면'은 기존 라면과 다르게 밀가루의 양을 최대한 줄이고, 식이섬유의 일종인 베타글루칸, 비타민 B군이 풍부한 군산의 지역농산물인 흰찰쌀보리 맥강을 주 원료로 사용하여 반려동물의 장 건강과 지역농가 소득 창출의 두가지 효과가 있으며, 라면의 가장 문제가 되는 스프의 염을 제거하고, 기호도와 건강을 생각해서 아미노산, 단백질, 콜라겐이 풍부한 황태를 넣어 강아지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안심당면을 개발했다.

영인바이오의 최인정 대표는 '자신의 반려동물인 푸들 다리가 퇴근 후 끓여 먹는 라면을 계속 먹고 싶어하는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반려동물을 위한 건강한 라면을 만들기로 결정했으며, 반려동물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로서 강아지의 건강과 안전성을 고려해서 제품개발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부에서 정한 예비사회적 기업이며, 소셜벤처기업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영인바이오는 18년도 설립 이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19년도에도 쓰담쓰담 브랜드의 첫 제품인 '반려동물 종합 영양제' 쓰담쓰담 Dr.+ (닥터플러스)를 와디즈 펀딩사이트를 통해 출시하여 845%의 펀딩 달성률을 기록했으며, 2020년 기준 전북생물산업진흥원에 입주해있는 기업 중 성장률이 두 번째로 높은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현재는 수의사들과 협업하여 반려동물 투약보조제인 Dr. Pat Pat을 개발하였으며, 영양제뿐만 아니라 츄르, 트릿형태의 기능성 간식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키워드 : 영인바이오, 쓰담쓰담, 안심당면, 강아지라면, 당면이라면, 최인정,

<기자회견문>

새만금호 담수화계획 포기와 해수유통으로의 전환을 선언합니다.



지난 2월 24일,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기본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이하, 새만금공동행동)’이 변경된 새만금기본계획을 확인한 결과, 새만금호의 담수화계획은 폐기되었으며 해수유통으로 기본계획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새만금호의 담수화 포기와 해수유통으로의 전환은 1991년 정부가 새만금간척사업을 시작한 지 30년만의 결정입니다. 오늘, 새만금공동행동은 새만금호의 담수화계획 포기와 해수유통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전북도민 그리고 국민과 함께 기뻐하고자 합니다.

1. 새만금 담수화계획은 폐기되었으며, 해수유통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이 공개한 변경된 새만금기본계획 특히, 수질개선대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기존의 새만금 기본계획에 명시되었던 새만금호 담수화 추진계획을 전면 삭제했습니다. 또한, 새만금호 외부(옥구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더불어, 새만금호 목표수질을 농업용지구간(중상류) 4등급, 도시용지구간(하류) 3등급으로 유지하면서, 새만금호 목표수질관리를 1일 2회, 배수갑문의 개폐 등을 통한 ‘현재 수질관리상태’ 유지(관리수위 EL-1.5m)의 방법으로 관리한다고 결정하였

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수질관리상태’가 바로 해수유통을 의미합니다.

또한, 단기대책(~2023)으로는 현재의 ‘배수갑문 운영’을 통한 수질관리를 지속 추진하며, 장기대책(2024~)으로 ‘배수갑문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호내 목표수질 유지를 위한 새만금호 내 해수순환 최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2024년 이후에는 필요 시 배수갑문 증설 등 해수유통 확대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만금호 해수유통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만금공동행동은 새만금호 해수유통으로의 전환을 공식 확인하며, 기쁜 마음으로 전북도민과 국민들에게 ‘새만금 해수유통’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2. 해수유통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적 새만금사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정부가 새만금호의 물관리를 해수유통으로 전환한 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새만금기본계획의 한계는 해수유통을 기반으로 한 사업계획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새만금호의 물관리만 해수유통으로 전환했을 뿐 대부분의 기본계획들이 담수화를 전제로 했던 과거의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관광레저용지의 일부에 해양관광과 레저가 포함되었지만, 적극적으로 해양과 생태관광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생태환경용지 조성 관련 갯벌복원 대책이 부재하고, 수질과 해양생태계 복원을 통한 수산업 활성화 대책도 전무합니다. 또한, 담수화를 전제로 설계되었던 스마트수변도시와 공원녹지 조성 계획, 관광레저용지 등의 설계와 기본계획의 변경도 불가피합니다.

이번에 변경된 새만금기본계획에 해수유통과 연계된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것은 해수유통을 중심으로 한 환경부의 수질개선대책이 뒤늦게 결정되고,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들의 새만금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부족한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새만금공동행동은 변경된 새만금기본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만금사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전북도민을 위한 공유의 새만금을 만들겠습니다.

새만금지역은 당초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구역과 갯벌에서 어업활동을 하던 어민들의 공유 공간이었습니다. 정부는 새만금사업을 실시하면서, 어류양식단지 2000ha 조성과 피해어민들에게 농지를 우선 분배하겠다는 등 유인책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인해 새만금 내측뿐만 아니라 새만금 외측의 어민들까지 연쇄적인 어업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새만금사업지역에서 피해 어민과 지역주민, 전북도민을 위한 공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공기업의 돈벌이와 대기업 자본만을 위한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을 뿐입니다.

새만금공동행동은 새만금에서 수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어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피해 어민과 농민들에게 농지를 우선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특히, 개인의 사적인 이익보다는 어민과 농민, 전북도민 모두를 위한 공유의 새만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활동하고자 합니다.

4. 새만금 해수유통량 확대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정부는 새만금호의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유통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2023년까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해수유통을 지속하고, 이후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

획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해수유통량으로는 수질과 생태계를 개선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예상되는 정체수역의 형성과 수질오염, 염분성층화, 갯벌과 생태계 복원의 한계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수유통량의 확대가 꼭 필요합니다.

새만금공동행동은 새만금의 수질과 생태계를 개선하고, 환경친화적인 새만금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해수유통량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새만금호 해수유통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고, 열린 자세로 논의하여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5. 새만금 민·관협의회의 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새만금호 담수화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변경된 새만금기본계획에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정부 관료는 새만금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부족합니다. 전북도청 관료는 새만금에 관심도 없으며, 오직 자신의 영달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더 이상 새만금을 정부 관료에게만 맡겨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또한, 새만금은 어민과 지역주민, 전북도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새만금공동행동은 새만금의 주인인 전북도민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새만금 민·관협의회의 구성을 제안하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입니다.

새만금은 전북도민이 꿈꾸고 준비한 만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새만금공동행동은 새만금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새만금을 전북도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서 활동하겠습니다.

오늘, 새만금공동행동은 새만금호의 해수유통으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하며, 새만금사업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꾸어가는 활동을 본격 전개할 것임을 전북도민과 국민들에게 밝힙니다. 더불어, 전북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새로운 새만금을 만들기 위한 (가칭)새만금 민·관협의회 구성을 공식 제안합니다. 그 동안 새만금 해수유통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3월 22일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
(상임대표: 김중주 오창환 이봉원 조준호 최중수)

공정하다는 것은 착각일까? 유토피아에 불과한 것인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마이크 샌델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저자는 대학 입시와 능력주의, 승자와 패자, 최후의 면책적 편견, 학력주의, “인재 선별기”로서의 대학 포퓰리즘의 반격 등 미국 사회를 바탕으로 썼다고 하였지만 직접 책을 구입하여 읽는 내내 한국 사회의 실정이 한 권의 책 안에 고스란히 기술되어 있다는 점에 놀라움을 자아냈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다양한 방법으로 부와 명예를 세습하던 일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뻔뻔한 거짓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린 사회,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는 뒷전으로 하고 포퓰리즘 정쟁만 일삼는 사회, 코로나19 사태로 중산층이 없어지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커진 사회, 사교육이 공교육을 짓밟는 사회, 명문 대학 졸업장만으로 인정받고 대접받는 사회, 공정한 경쟁이나 정의는 사라져 버린 이러한 한국 사회가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아니 이미 없어졌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공정한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공정한 사회는 환상(유토피아)일 뿐인가? 어찌 보면 유토피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우리가 공정과 정의를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함일 것이다. 반면 마이크 샌델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공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곳으로 바로 대학이다. 지금의 사회는 명문 대학을 나온 소수가 대학을 나오지 않은 다수를 지배하는 계급 제도의 부활이라 말하며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며 능력주의가 내포한 결함들을 들여다 보여주고 있다.

능력 = 돈 + 지위를 자들이 얻기 쉬우므로 능력주의는 현대 사회의 세습 귀족제, 사유 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에서 빈부 격차는 필연적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 해소는 할 수 없지만, 대학 입시제도가 교육 제도의 공정성 회복으로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들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때보다 정의와 상식, 공정이 무너져버린 시대를 살고 있어서인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이야기에 더욱더 공감하며, “공정하다는 것은 곧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일지도…….”

참고문헌 : Michael J. Sandel, "The Tyranny of Merit"



박홍근
군산대학교 겸임교수
살롱-Info 대표
군산소룡초등학교 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whitelove0208@naver.com

학령인구 감소로 빠르게 돌아가는 지방소멸 시계

2021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이 끝나고 개강한지도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났다. 지방에 위치한 대학의 신입생 모집 결과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대구대의 경우, 신입생 미충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장이 사퇴하고, 지방의 몇몇 대학들은 입학처장이 사퇴하는 등 후폭풍이 여전하다.

사실 이번 지방 대학들의 신입생 미충원 사태는 약 20년 전부터 예견되었던 일이다. 출생자 수는 2001년부터 급감하였고, 올해 신입생들은 2002년생들인데 그해가 출생자 수가 대입 정원보다 적은 해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이후 출생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내년, 후년의 신입생 모집은 지방에 위치한 대학에게는 올해보다 더 한 고통이 뒤따를 것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1998년부터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1998년~2002년에는 국립대학 구조조정계획, 2003년~2008년에는 대학 구조개혁, 2010년~2014년에는 정부 재정 지원 제한대학, 2015년~2017년에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 2018년~현재는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통해 대학의 입학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부실대학 등을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지방에 위치한 대학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지방에 위치한 대학들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10%의 정원을 “자율감축” 하였으나,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들은 정원을 거의 줄이지 않은 것이다.

이번 신입생 모집 결과를 두고, 정부에서는 입학 정원 조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지방대학들의 정원만 조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은 뚜렷하게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기본역량진단 등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은 지방대학에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지적도 많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지방대학은 붕괴되거나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방의 대학이 소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방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지역의 인재가 외부로 계속 유출되기 때문이다.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지역의 대학이다. 지역의 대학이 문을 닫으면 지역의 상권이 무너진다. 지역의 대학이 사라지면 지방과 수도권의 교육 격차는 더욱 극명하게 벌어질 것이다.

학력인구 급감에 대비하여 대학 자체적으로도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학사구조조정, 교육과정 재설계, 우수한 교수진을 초빙하고,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의 대학의 역량을 재고하는 노력과 함께, 주중과 주말을 구분하지 않고 인근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대학교 알리기에 나서는 홍보 활동까지, 대학 자체적인 노력은 지금 이 순간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거대한 현상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결국 지금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문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지방의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하고, 지방과 수도권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윤영민
군산대학교 해양산업
운송과학기술학부 교수
군산대학교 기획부처장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연구원
young@kunsan.ac.kr

미얀마에 평화가 깃들기를

1962년 버마 쿠데타 이래로 군사 정권이 들어선 미얀마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점진적으로 민주주의 정권으로의 이양이 이루어졌으며, 2015년 미얀마 총선거에서는 아웅산수찌가 이끄는 국민민주주의연맹이 과반수를 넘는 수의 의석을 차지했다. 그러나 군부는 여전히 상당한 권력을 유지했으며 미얀마 의회의 의석 가운데 1/4을 차지했다. 2020년 미얀마 총선거에서 국민민주주의연맹은 476석 가운데 396석을 차지하며 이전보다 더 많은 의석 수를 차지했으며, 미얀마군과 연계된 통합단결발전당은 33석을 차지했다. 미얀마군은 부정 선거가 있었다면서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고, 2021년 2월 1일 아침에 미얀마군은 쿠데타를 일으켰다.

쿠데타로 인해 미얀마의 국가고문 아웅산수찌와 미얀마의 대통령 윈 민 및 여당 지도자들이 축출된 뒤 가택 연금되었으며, 미얀마군은 1년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미얀마군의 참모총장 민 아웅 흘라잉에게 권력이 이양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말 현재 사상자는 최소 550 여명이며 체포된 사람들만 약 2천2백여 명이다. 각 나라들도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것을 규탄하였으며 현재 미얀마 시위대들은 각국에 지원을 요청했고, UN에도 평화유지군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미얀마 정부에 최루탄 등과 같은 진압용 무기 수출을 금지했다.

쿠데타 이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으며, 미얀마군의 행동을 규탄하고 억류된 사람들을 석방하며 민주주의를 복구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의 초안이 나왔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대표가 본국에 이를 보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15개 회원국 모두의 지지를 얻지 못해 의결을 결정하지 못했다.

미얀마를 보면서 우리는 41년 전 광주를 연상한다. 도심을 장악한 중무장한 군인들, 군부의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총칼의 무력으로 무참히 짓밟는 모습들,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 우리 편지를 잘 받아주세요."라고 외치는 집회 참가 시민들의 목소리는 마치 광주의 5.18민주화 항쟁 시 "우리는 최후까지 싸울 겁니다. 우리는 광주를 지켜내고야 말 것입니다."를 외쳤던 가두방송의 전옥주(21.02.17일 별세)씨의 목소리가 미얀마에서도 울려 퍼지듯, 미얀마의 도심에서도 피맺힌 절규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 국가행정평의회(SAC: State Administration Council)를 설치하고 국가권력 장악과 통치체제 정비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고, 새로운 총선을 준비하며 소수민족들과도 평화 협상을 맺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도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정권의 안정적 구축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양상이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대응과 제재를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고, 미얀마 최대 공여기관인 세계은행그룹은 미얀마에 대한 차관과 무상원조를 일시 중단하는 등의 조치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 10일에 걸친 광주 민주화 운동 결과 사망자 166명, 행방 불명자 54명, 상이 후유증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 등에 달하는 인명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떠안으며 가슴에 맺힌 민주화 항쟁의 시련을 딛고, 국정 농단과 뇌물 수수 등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으로 이끌며 민주주의를 지켜온 우리나라의 힘과 역사를 본받아 미얀마에도 하루빨리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본다.



온승조(컬럼니스트)
gsforum@hanmail.net

공정한 세상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에 악재가 터져 나왔다. 그렇다 분명 LH 사태는 청와대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에는 큰 타격으로 보인다.

곧이어 이번에는 여당발로 부산의 LCT의 문제가 드러났다(갑자기 터진 것은 아니다). 그뿐 아니다. 매일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비공개 정보를 빼서 땅투기하고 큰 수익을 냈거나 내려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각 지자체에서도 '전수조사'를 들고 나왔다. 모든 공직자와 정치인을 비롯한 청와대 직원까지도 전수조사한다거나, 특검을 한다거나, 특별 수사를 한다거나, 국정조사를 한다는 등, 그야말로 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번에 갑자기 생긴 일인지 묻고 싶다.

언제부터인지 그 시작도 알 수 없는 그때부터, 가진 자들은 다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았는가 말이다.

우리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다. 개발지로 공개되기 전부터 이미 가진 자들의 투기는 다 끝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심지어 미리부터 땅을 사게 해 놓고 그곳을 개발하겠다고 나중에 발표하거나, 특정인의 부 축적을 위해서, 이미 선정된 부지를 변경하는 따위의 일이 어디 한두 번이고, 한두 곳이었느냐는 말이다. 이미 이 작은 지방 도시에서도 몇 년 전에 확인되었던 일이다.

상급 병원이 없어서 시민이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죽어 가는 것처럼 시민을 기만하여, 멸종 위기종과 천연기념물까지

가득 찬 1급 자격의 습지를 훼손하고 하필이면 그곳에 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시장은 시민을 동원하여 '죽어도 짓겠다'라고 했다.

접근성을 말했지만, 가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었고, 예산 절감을 이유로 댔지만, 기반시설비가 별도로 수백억 원이 더 들어가야 하는 곳이었다.

국회의원은, 당장 착공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시장 편을 들었다.

결국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라도 그곳이어야 했던 이유가 밝혀졌다. 이미 8개 지역을 예비 후보로 심사하던 중에 갑자기 튀어나온 그곳, 그리고 이해할만한 이유 없이 다른 곳과 비교하는 절차도 거의 없이, 밀어붙였던 이유는 그야말로 땅 투기였다.

병원이 들어서면 맹지가 상업 용지로 변경되는 곳, 몇만 원짜리 땅이 천만 원짜리가 될 수 있는 곳, 최소한 천억 원 이상의 차익을 챙길 수도 있는 곳, 토호 세력도, 정치인도, 공무원도 땅을 사 두었던 곳이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언젠가 혹시 개발되면 노후의 삶을 위해서"라고...

투기가 먼저였는지, 부지 지정이 먼저였는지는 알 길이 없다. 모두가 절대 관련이 없다고 하니, 우리는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그 일 후로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병원은 새로운 부지만 선정된 채,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상급 병원이라고 했지만, 상급 병원도 아니었고, 비슷한 규모로 이미 두 곳이

존재하는 그런 정도의 병원이었음도 밝혀졌다.

그것을 기획한 사람들 때문에, 그들과 같은 배를 탔다가 손해만 본 사람들, 개발 기대에 잔뜩 부풀었던 주민들은 그저 피해자가 되었다.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을 상대로 투기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니, 그저 해 보는 척 흉내만 내지 말고, 그때 그 시절에 누가 땅을 샀는지, 그 명단을 공개하면 좋겠다. 개발이 이루어져 실제 이익을 본 것은 아니니 처벌할 근거는 없겠으나, 공정한 세상을 원한다면 한번쯤 그 명단 공개는 필요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 이유도 의지도 없겠으나, 그들에게 공정한 세상은 자기가 투기한 그곳이 개발되어서 수많은 이익을 내주는 사회, 그 사회가 바로 공정한 사회가 아닐까? 설령 비공개 정보를 얻었다고 해도, 80%의 대출을 해 준다고 해도, 나머지 20%의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세상은, 슬프지만 존재하지 않는다.



남대진
수필가 / 청목하우정 대표 /
군산사료총판 진우상회
공동대표 / 시민·사회·
환경 운동가

[7 : 3]의 법칙

[7]은 대부분의 국민이다. 그들은 정치에 거의 관심이 없다.

그보다는 콩나물 가격, 아이들 학교, 내가 사는 집 가격 등을 고민한다.

정치적인 성향은 흐릿하고, 스쳐 지나가 듯 보는 뉴스와 신문의 정보에 의존해서 투표권을 행사한다.

[3]은 유별나다. 이들의 절반 정도는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타적이며 자기 혼자 살아가기보다는 상생을 고민한다.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을 추구한다.

[3]의 나머지 반은 보수적이다. 이들의 기반은 물질이며,

돈과 자본주의와 반공 개념이 투철하다. 대부분 배타적인 특징이 보여진다.

이 [3]의 공통적인 특징은 정치에 매우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7]은 매우 유동적이며, [3]은 하늘이 무너져도 신념을 바꾸지 않는다.

정치와 선거는 [7]을 두고 싸워야 한다. 그들의 신뢰를 얻어야만 승리한다.

그 대부분의 [7]은 노무현 정신이나, 개혁이나, 불평등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지하다. 페이스북 같은 SNS도 거의 하지 않기에, 그들은 그저 가져다 바치는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미지 세탁도 필요하고, 쇼맨십도 필요하고, 포퓰리즘도 필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이다. 정치를 아무리 잘해도 언론이 장난을 치면 [7]은 그 장난을 믿는다. 우리는 이미 노무현 정권에서 봤고, 지금 이 정부에서 또 겪고 있다. 한번 실수는 보약이지만, 두 번째 실수는 멍청이란다.

박근혜 탄핵은 어떻게 했냐고? 그것도 언론의 선택이었다. 잘 생각해 보자. 언론이 아니었다면 탄핵이 가능키나 했겠나.



이진우(발행인)
jay0810@hanmail.net

2021 문화살롱 “문화도시를 꿈꾸는 시민들의 열린공간”

문화살롱은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한 군산시민예술촌의 문화예술고리 사업의 일환이다. 군산시민들과 예술인들이 모여 각 장르별 비전과 전망을 공유하는 열린 수다방으로 지속되어 왔으며, 올해는 “문화도시를 꿈꾸는 시민들의 열린공간”이란 주제를 가지고 지난 3월 26일(금) 저녁 7시 군산시민예술촌 공연장에서 열렸다.

“문화도시”라는 말 자체가 어렵게 다가올 법 하다. 그러나 문화살롱에서는 어떤 주제든 누구나 쉽게 말하고 토론하면서 군산 문화를 말하고 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군산에 살면서 보고 느끼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토론하여, 답소를 나누면서 다양한 사고방식과 견문을 넓혀나가 결국은 군산시 문화예술 발전을 함께 논하는 자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바람으로 그래피티 예술 이종배 작가가 첫 시작을 알렸다.

본인이 말하는 그래피티 예술이란 무엇인가와 작품 활동을 통해 겪어온 다양한 사례와 사업 효과성에 대하여 발제하였고, 궁금증이 생긴 분들의 질의응답으로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다.

특히 5월 29일(토)에 계획 구상 중인 시민 모자이크 퍼포먼스 사업을 설명하여, 함께하신 분들에게 아이디어도 함께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군산시민예술촌 박양기 총장은 올해 문화살롱이 시민들의 열린 공간으로써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라며 누구나 쉽게 참여하길 바라며, 이렇게 모여진 네트워크 모임에서 함께 상생하며 관계 맺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시민 모자이크 퍼포먼스

2021년 군산시민예술촌이 군산시민들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시민 모자이크 퍼포먼스 사업을 할 예정이다.

이종배(그래피티예술가)를 총감독, 함정훈(청년 기획단장)을 프로그램 매니저로 하여 군산시민들이 약 2주간 그림을 그리고 다양한 그림들을 모아 5월 29일(토) 구 시청광장에서 조각난 작품을 퍼포먼스로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사 당일에는 시민들이 소망하는 메시지를 직접 적기도 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존도 구상 중이어서 앞으로 기대해 볼만하다.



군산시민예술촌
군산시 중정길 17 (구 우일극장)
063-443-7725
www.gsartzone.kr

우리의 청춘길일(靑春吉日)



'청춘의 좋은 날'을 만들어가는 청년들이 있다. 청년이 꿈꾸는 사회 변화와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혁신 환경의 구성을 통한 자립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길위의청년학교 이야기이다. 길위의 참여청년들이 2년 내외의 과정을 이수하면 그들이 꿈꾸는 사회 변화를 위한 비영리 민간단체, 네트워크 등을 만들어 자립할 수 있도록 그 바탕을 만들어 가는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2021년도에는 새롭게 활동할 신입 청년들이 모였고, 1 전국 각지에서 각자의 꿈을 가진 16명의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다.

2월 27일 2021 길위의청년학교 개교식 및 청년 비전세미나 '청춘길일(靑春吉日)'이 열렸다. 행사는 길위의청년학교 시작을 축하하고, 기관의 가치와 미션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을 안내했다. 또한 향후 어떠한 비전을 갖고 함께 나아가야 하는지 청년, 관련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세미나도 진행되었다. 유튜브, 페이스북 SNS 채널을 통해 방송으로 진행된 이번 개교식은 지역사회의 많은 청년, 시민분들이 함께해 청춘의 시작을

응원했다. 길위의청년학교 운영지원이사회 장동현 부이사장과 김소현 청년이사회를 맡았다. 신영대 국회의원, 강임준 시장, 박일관 군산교육장 등 축하 영상을 시작으로 김현수 들꽃청소년세상 이사장, 이강휴 길위의청년학교 이사장의 격려와 개회사가 이어졌다.

이강휴 이사장은 공간을 바라보는 시선과 청년들의 역할에 대해 말했다. 청년들에게 내가 선택한 공간에서 타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을 바라보며 소통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비전세미나에서는 이항근 길위의청년학교 이사의 '사회혁신은 꿈꾸는 청년에게'라는 발표가 있었고, 나효우 착한여행 대표가 '지역청년공간의 현위치 및 비전'을 주제로 청년 활동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또한 길위의청년학교 과정에 참여하는 원예은, 전예빈, 정이한 청년의 자기 비전과 계획을 발표했다.

"나다움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 사회의 구성원인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길위의청년학교 활동은 저에게 기회입니다." 정이한 청년의 발표이다. 청년활동을 새롭게 시작하는 신입 청년들을 비롯하여 많은 이웃들은 댓글을 통해 '사회혁신을 꿈꾸는 삶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과 생각들을 꺼내놓았다.

길위의청년학교 정건희 교장은 청년활동가들이 뜻과 이상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그 이상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상을 붙들고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나이를 떠나 모두가 청년이다. 그런 청년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청춘 길일이 펼쳐지고 있다.

청소년자치연구소 및 달그락달그락
홈페이지 : <http://www.youthauto.net/>
페이스북 : [youthautonomy/](https://www.facebook.com/youthautonomy/)
문의 : 063-465-8871, jbyar@daum.net

웃을 때마다 눈부신 치아
항상 성심행도!
너무 아름다운 미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항상 성심을 다해 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좋은사람 좋은치과가 되겠습니다.

Get a Smile. **좋은사람 좋은치과**
Good People, Fine Dental

진료시간
● 평일: 오전 9:20 - 오후 6:40
● 토요일: 오전 9:20 - 오후 1:30
● 화요일 야간진료: 오후 8:00까지

add 전북 군산시 수송동 852_2 청담빌딩 3F
tel.063_466_2875 fax.063_465_2922

군산에서 펼쳐지는 축제 및 행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캘린더입니다. 매일 새로운 행사를 찾아다니며 군산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행사 및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맥군(매거진군산)에서는 행사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사를 맥군 행사 안내란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감은 매월23일까지 입니다. jay0810@hanmail.net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행사와 공연 스포츠 경기를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GUNSAN CALENDA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01	02	03
			군산시립합창단 제105회 정기연주회 군산예술의전당	바리톤 정원영 독창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라북도립국악원 목요상설 '국악도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04	05	06	07	08	09	10
			제37회 전복연극제 - 들꽃상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시립교향악단 제246회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라북도립국악원 목요상설 '국악도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뮤지컬 '캣츠' 40주년 내한공연 문준철 바이올린 독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독립운동가 춘고 이인식선생 헌정 공연(연극) 군산 예술의전당	
11	12	13	14	15	16	17
뮤지컬 '캣츠' 40주년 내한공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뮤지컬 '캣츠' 40주년 내한공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라북도립국악원 신춘음악회 신혜지 클라리넷 리사이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프라노 설정훈 독창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뮤지컬 신데렐라 군산 예술의전당	
18	19	20	21	22	23	24
					김노을 피아노 독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대학교 제68회 춘계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크리피아 피아노 앙상블 제26회 정기 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5	26	27	28	29	30	



전시 | 군산 예술의전당
영원한 빛의 화가 모네와 인상파전 2021-04-03 ~ 2021-05-19



우리들의 작은 관심으로 희망과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스영어원
군산시 쌍천로 82-13(개정동)
(063) 452-4075

일맥원
군산시 석치2길 14(문화동)
(063) 462-2385

구세군군산목양원
군산시 회현면 남군산로 332-45
(063) 466-6088

구세군군산후생관
군산시 월명로 514(신흥동)
(063) 445-9331

신광모자원
군산시 부곡로 19(나운동)
(063) 462-7749

나눔의집
군산시 옥구읍 옥정길 101-7
(063) 464-9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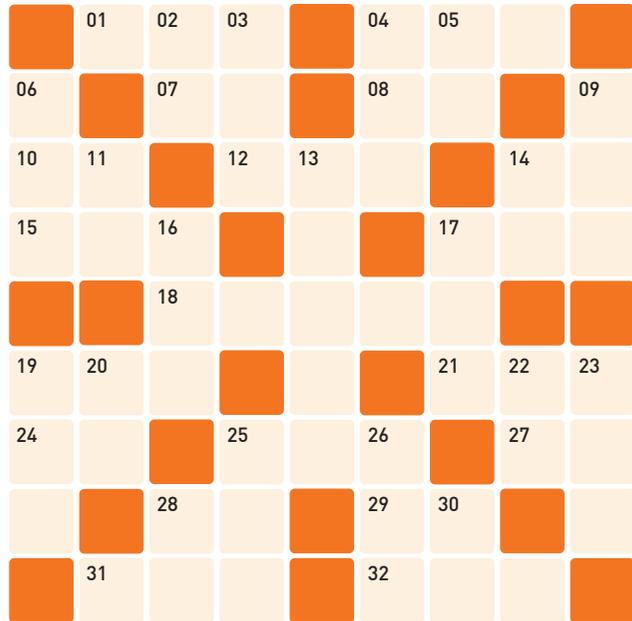
삼성애육원
군산시 구영2길 1-2(신창동)
(063) 445-5947

신광모자자립원
군산시 한밭1길 35(나운동)
(063) 461-8572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군산시 칠성안3길 37(산북동)
(063) 466-7981

낱말 실력도 늘고, 상품도 받고

즐거운 크로스워드 퍼즐 117



<제116호 퍼즐 정답>

경	칩	월	령	이	청	춘
인		레		불	황	삼
선	장	벌	초		추	월
비	지	떡		학	사	모
		적			춘	
	고	도	리		인	기
상	정			낙	조	추
머		사	육		인	락
슴	베		수	라	간	야
						호

정답 (이름, 연락처, 주소)을 매거진군산에 보내주세요.
당첨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Fax. (063)446-1856 E-mail. 282pyk@hanmail.net

연락처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선물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답과 연락처, 주소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내용은 4페이지 협찬업체 참조

▶ 가로 열쇠

- 01 봄의 경치를 즐기러 나온 사람.
- 04 부부간에 사이가 나쁜 살. ○○○이 들다.
- 07 밀가루 따위로 만든 음식.
- 08 와인을 빛는 대표적 년굴 열매.
- 10 꿈무늬에서 나온 실로 그물을 쳐 먹이를 잡는 곤충.
- 12 구멍이 뚫린 연탄을 통틀어 이르는 말.
- 14 '그릴 리는 없었지만'의 뜻으로 이것이 사람 잡는다는 말도 있다.
- 15 사람이 가곤 채소나 저절로 난 나물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17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선.
- 18 귀, 코, 목구멍, 기관, 식도의 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학 분야.
- 19 빨주노초파남보.
- 21 임금의 진지를 짓던 주방.
- 24 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사람. 동남아치.
- 25 우체국에 국장의 승인을 받고 비치하는 가입자 전용의 우편함.
- 27 마음이 어질고 자애로움.
- 28 황진이, 두향, 매창, 논개 등.
- 29 서로 마음이 통하는 친한 벗.
- 31 영양과 발육 상태가 매우 좋은 아이. 과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아기의 선발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 32 고고학적 자료, 역사적 유물, 그 밖의 학술 자료를 수집, 보존, 진열하여 일반에게 전시하는 시설.

▼ 세로 열쇠

- 02 이십사절기의 하나로 경칩과 청명 사이에 들며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는 날.
- 03 본디 식구가 아니면서 묵고 있는 사람.
- 04 탄알 없이 화약만 들어 있는 탄환. 소리로 신호를 하거나 예포를 쏠 때 주로 쓴다.
- 05 어떤 일을 하거나 문제를 풀어 가기 위한 방법과 도리.
- 06 잇달아 여러 번 되풀이하여.
- 09 큰 배와 육지, 또는 배와 배 사이의 연락을 맡아 하는 작은 배.
- 11 아름다운 목소리.
- 13 인터넷 बैं킹이나 온라인 증권 거래, 전자 민원 서비스 따위를 이용할 때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디지털 신분증.
- 14 눈이 내리거나 눈이 쌓인 경치.
- 16 귀지를 파내는 기구.
- 17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줄여 이르는 말.
- 19 곡식 따위를 뿔아 체에 쳐서 가루를 내고 남은 찌꺼기.
- 20 어린아이의 말로 더러운 것을 이르는 말.
- 22 그어 놓은 금이나 줄. 터치○○. ○○댄스.
- 23 가오리의 새끼.
- 25 법률상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 26 통나무의 속을 파서 큰 바가지 같이 만든 그릇.
- 28 기술상의 재주.
- 30 물을 길기 위하여 땅을 파서 지하수를 고계 한 곳.

출제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당신의 구독이 군산의 문화를 꽃피웁니다

MAGAZINE
Gunsan
매거진군산 구독신청서

군산의 문화와 언론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매거진군산은 100호까지 무료로 발행이 되었으며 101호부터 유료로 배포가 됩니다.
본 CMS 출금이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매달 잡지를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팩스로 송부 (063)446-1856 해주시거나 혹은 사진을 찍어 이메일로 jay0810@hanmail.net 보내주시면 됩니다.

■ 출금이체서

수납기관 및 요금종류

· 수납기관명 : ICM(아이씨엠) · 대표자 : 이진우 · 사업장 주소 : 전북 군산시 큰생길 1 · 사업자등록번호 : 401-05-33000 · 수납 요금종류 : 구독료 납부

매거진군산 구독(7,000원 /월)

매거진군산 + 새군산신문 구독(10,000원 /월)

■ 구독받으실 주소

· 출금계좌 예금주명 :

· 예금주 생년월일 :

계좌 예금주가 사업자일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금융기관명 :

· 출금 계좌번호 :

· 예금주 연락처(휴대전화) :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경우

· 신청인명 :

· 예금주와의 관계 :

· 신청인 연락처(휴대전화)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세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올포유에서 베리-굿

초특가
세일전 최대 85%



ALLFORYOU
-정상·상설복합점-



올포유 본사참고대개방전

5 군산나운점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317 (나운동) Tel. 063) 463-9693

5 군산수송점

전북 군산시 수송동 802-16 Tel. 063) 468-3900

No.1 스포츠키주얼 올포유